



은행권
홍콩ELS 손실
이르면 내달 배상
03



Economy

코스피 2748.56 (-6.30)	코스닥 903.98 (-0.31)
금리 (미국 3년) 3.284 (-0.022)	환율 (원-달러) 1338.40 (+16.00) (22일)

인체 모사체로 동물실험 없이 개발... 시간·비용도 뚝

오가노이드가 여는 미래

1 신약연구 플랫폼 대세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가 인체에 투여됐다. 이를 계기로 오가노이드 기술의 인체 적용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기술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체 모사체로 동물 실험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재생치료제를 통해 난치병 환자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며, 손상된 장기를 교체해 건강 수명을 무한 연장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메트로경제신문>은 5회에 걸쳐 오가노이드가 열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45개국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강화된 규제 의약품으로 옮겨가
美대통령 FDA 현대화법2.0 통과
국내에서도 의약품 임상 고시 개정
인체 생물학 기반 시험 대체 가능

인체 장기를 실험실에서 키워내는 ‘오가노이드(Organoid)’가 대체로 떠오르고 있다. 화장품 제조에 동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연구를 금지하지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신약개발 과정에서 동물시험 의무조항이 사라지면서 동물을 대체할 플랫폼으로 오가노이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는 기술은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실제 인체 모사체를 통해 신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개발 시간과 비용 단축이라는 획기적인 결과를 끌어내고 있다.

◆동물실험 금지, 전세계 확대

24일 독일의 동물실험 대체 바이오 기술 플랫폼 기업 람다바이오횰스에 따르면 화장품에 동물실험 금지가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이다. 지난 1998년, 전 세계 처음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한 나라는 영국이었다. 이어 2011년 3월11일 유럽연합(EU) 전체에 동물실험 금지법이 시행됐다.

한국은 2016년부터 시작해 2017년 원칙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이 금지됐다. 현재는 45개국이 화장품에 대한 동물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규제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동물 실험 금지 움직임은 의약품으로도 옮겨가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식품의약품(FDA) 현대화법2.0을 통과시키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에 있어,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화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인체 투여 임상 전 비임상 단계에서 동물실험 결과 없이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과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독성자료 제출 시 비동물 또는 인체 생물학 기반 시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인체 생물학 기반 시험이란 동물 모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생물학적인 반응을



한동훈, 전국대의대교수 회장단 면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파국으로 치닫한 ‘의정(醫政) 갈등’과 관련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중재자 역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파국으로 치닫한 ‘의정(醫政) 갈등’과 관련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중재자 역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전국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모사할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한 시험 방법을 말한다.

오가노이드는 성체줄기세포나 전분화능줄기세포를 기반으로 인체 밖에서 만든 3차원 조직 모사체를 말한다. 오가

노이드를 활용하면 인체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동물 실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낸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스위스 금리 인하 스타트... ‘글로벌 피벗’ 이어지나

<통화정책 전환>

낮은 물가유지로 금리 0.25%p ↓
美 등은 인플레이션... 인하 미지수

스위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면서 주요 국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의 전쟁을 치른 가운데 스위스에 이어 다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지 여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민은행(SNB)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인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를 올린 주요 선진국 가운데

처음이다.

◆스위스, 9개월째 물가 1%대

스위스가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애당초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1년 말 1%대를 기록하던 스위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8월 3.5%까지 오르다 2023년 6월부터 1%대로 내려왔다.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2년 8월 9.1%까지 상승한 뒤 2023년 6월 5%대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스위스는 물가의 큰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가격이 안정돼 있다. 스위스는 산악지형과 1500개가 넘

는 호수 덕에 수력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다. 에너지 기업이 프랑스 등과 달리 국유화돼 있다는 점도 저물가의 비결로 꼽힌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춰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스위스프랑의 강세도 금리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2년 8월 1스위스프랑은 1.04달러, 이날 기준 1스위스프랑은 1.1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승세를 이어온 스위스프랑은 9월 전후 주춤한 뒤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자 다시 올랐다.

스위스가 중립국인 데다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이어서 전쟁국면에서 스위스 화폐가 안전자산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화폐가치가 상승하면 금리인상 효과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 부담이 낮아진다. 물가가 낮고, 스위스프랑 화폐가치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리인하, 도미노는 ‘글세’

다만 스위스로부터 시작된 금리인하 바람이 전 국가로 확산할 지는 미지수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광고

메트로경제와 함께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동반자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들의 야심찬 도전을 기다립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료신문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취재경위를 자율 공시하는 ‘기사이력 공시제도’를 국내 언론사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AI(인공지능) 앵커를 활용한 동영상, yap TV와 제휴를 통한 서울 시내버스 내 뉴스 제공 등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과 융합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2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미디어 역사를 새로 쓸 인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① 신입 취재기자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신입 취재기자
 -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
 - ▲ 2차 : 취재역량평가 시험 (기사 작성 및 평가)
 - ▲ 3차 :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모집인원 : 00명
 -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4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 우대사항
 -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 <2면에 계속>



뉴스터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미북귀 전공의, 원칙대로 26일 면허정지”
▲ 조국혁신당, 선대위 ‘파란불꽃’ 공식 출범 <사진 뉴시스>

▲ 한동훈 “이재명 ‘세세’ 발언, 민주 대중국 굴종 인식 확인”
▲ 북한, 대남기구 ‘조국전선’도 해체... “더 이상 필요없어”



▲ 추미애 “이재명, 국민 바라는 것 마음에 담아... 차은우보다 잘 생겨”
▲ 이재명, ‘갯뽕기 의혹’ 이영선 공천 취소... “의석 손실 감수” <사진 뉴시스>

장년층 더 일하고 청년층 더 쉬었다... 경제활동 격차 뚜렷

2022년 OECD 경제활동참가율 55~64세 70.3%... 상위권 차지 생산가능인구는 최하위권 수준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참가율이 55세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반면, 청년층과 40대 등을 포함하면 주요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쉬었다'라고 답한 20~30대 인구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난 바 있고, 이 같은 청년층의 이탈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2022년 말 기준 70.3%로, 역대 처음 70% 선을 넘어섰다. 지난 2000년 59.6%에 불과했으나 2013년(65.8%)에 65%대를 찍고 계속 오름세를 보여 왔다.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항공지원센터에서 열린 공항일자리 채용의 날 행사에서 한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국 2022년에 38개 회원국 중 이 부문 16위에 오르는 등 OECD 평균(65.3%)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같이 55~64세 참가율이 캐나다(66.9%)와 영국(66.1%), 미국(65.2%), 프랑스(60.3%) 등에 앞섰다.

그러나 범위를 15~64세 생산가능인

구로 넓히면 우리나라는 30위에 그친다. OECD 평균(73.2%)을 밑도는 70.5%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55~64세 비교에서 한국에 뒤졌던 캐나다(79.8%)와 영국(78.3%), 미국(74.0%), 프랑스(73.6%)는 모두 평균치를 상회했다.

일본(80.6%)의 경우 한국보다 참가율이 10%포인트(p) 이상 높았다. 7위에 오른 일본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고루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아이슬란드(1위 86.6%)를 비롯해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등이 15~64세 참가율에서 80% 선을 넘겼다. 리투아니아와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도 75%를 넘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 공급에 기여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국가의 노동시장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층과 관련한 노동시장은 건전성과 거리가 있

는 셈이다.

한국은 게다가 미성년자와 대학생 등을 제외한 25~64세 참가율 순위는 더 저조했다. 2022년 76.8%로 38개국 중 최하위 그룹인 33위에 그쳤다. 회원국 평균치(78.8%)보다 2%p 모자란다. 이 부문에서 일본은 86.6%로 4위를 차지했다. 일본에 앞선 나라는 스웨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등 3개국뿐이다. 반면 한국보다 순위가 처진 나라는 5개국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쉬었음 기간이 길어지면 고용 가능성이나 고용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잠재성장률도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쉬었음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1면 '메트로경제와 함께'서 계속

■ 제출서류

- ① 회사 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www.metroseoul.co.kr, 카페(아랑), 구인 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 간: 2024년 2월 29일(목) ~ 2024년 3월 29일(금)
-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3월 29일 도착분) / 채용 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접수 가능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육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년 4월 3일(수)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① 일시: 2024년 4월 9일(화) 10시 ~ 16시 40분
② 장소: 서울시청 지하 2층 시민청 워크숍룸
③ 내용: 당일 공지하는 취재 주제로 기사 작성하여 제출
- 면접(실무 및 임원 면접)
① 일자
① 실무면접: 2024년 4월 11일
① 임원면접: 2024년 4월 15일
②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③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4년 4월 17일(수)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기타 문의 사항은 당사 경영지원실로 연락바랍니다.
- ☎ 02-721-9851

정부, 유가불안 대응 팔 걷어...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유가 최고치 정유업계 "정책기조 협조, 인상 자제"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석유 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내달 말 종료될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고자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우리나라 주 수입 유종인 두바이유 가격은 85.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주 대비 0.68달러 올랐다.

다른 유종도 오름세를 보인다. 같은 날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85.43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80.63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70달러대를 상회하던 연초 대비 상승한 수치다.

유가가 치솟은 것은 이라크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감산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향후 몇 달간 원유 수



오피넷에 따르면 3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1리터 평균 판매가격이 전주보다 1.1원 하락한 1,638.2원을 기록했다. 경유도 1.5원 하락한 1,538.2원을 나타냈다. 대한석유협회는 다음주 이후부터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받아 기름값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뉴스시스

출을 하루 33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등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점도 국제 유가 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해 러시아 곳곳을 드론으로 공격해 화재가 발생했

다. 이날 공격으로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400km가량 떨어진 니즈니노브고로드주의 러시아 2대 정유 시설이 타격을 입었다.

해당 단지의 원유 정제 시설이 망가져 정유 생산 시설의 절반가량이 가동 중단됐다. 해당 단지는 러시아의 한해 전체 원유 정제량의 5.8%에 달하는 1580만톤을 처리하는 곳이다.

정부도 이러한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경계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한다면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석유류 제품 가격이 오르면 물가 불안이 커질 수 있으며 내달 총선까지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 재연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휘발유에 25%, 경유에 37%씩 적용되는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도 동반 상승해 정유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협조해 기름값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미래 신기술 자리매김... 2030년 시장규모 122억弗 전망

>> 1면 '인체 모사체로...'서 계속

피부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화장품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인간 장기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임상에 앞서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전임상 단계에서 약물 후보물질 발굴 기간을 줄이고, 임상 예측률을 높여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030년 16조 시장으로 성장

전 세계적으로 오가노이드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오가노이드 시장규모는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해 FDA의 동물시험의

무조항을 삭제로 시장 성장에 가속도가 붙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인사이트파트너스에 따르면,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1.9%를 기록하며 2030년 122억달러(약 16조원)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가노이드가 미래의 신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전 세계에서 오가노이드 개발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중이다.

실제로 오가노이드가 개발된 것은 2009년 경, 네덜란드 후브레흐트 연구소의 한스 클레버 박사가 장 줄기 세포를 추출해 배양함으로써 실제 장 조직을 정교하게 모사한 장 오가노이드를

개발한 것이다.

2013년에는 오스트라 분자생명과 학연구소 쥐르겐 노블리취 박사가 모든 종류의 세포로 자랄 수 있는 전분화능줄기세포를 3차원으로 분화해 인간 뇌의 특이 구조를 모사하는 방법을 발표하며 뇌 오가노이드의 길을 열었다.

장으로 시작된 오가노이드는 뇌를 거쳐 현재 침샘, 피부, 망막, 갑상선, 위, 간, 신장, 췌장, 유선, 자궁 오가노이드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가노이드를 개인별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맞춤형의학도 각광받는 분야다. 개개인의 줄기세포에서 분화된 오가노

이드를 활용해 약물테스트를 미리 시행할 경우, 발병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여 불필요한 약의 복용을 막아 효과를 높이고 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환자의 조직을 기반으로 종양 오가노이드를 만들면, 항암제를 미리 시험해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진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 손미영 박사는 "오가노이드는 질환 모델링부터 유효물질 탐색, 선도물질 발굴을 위한 유효성 및 독성평가에 이르는 신약개발의 전임상 모든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며 "미니 장기는 인체의 실제 장기와 같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약물에 반응해 신약개발과 제약 산업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은행권, 자율배상 적극 참여... 이르면 내달 배상금 지급

H지수 ELS 손실 사태

우리은행,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하나·농협·신한, 배상안 본격 논의
금융권 “당국 차원 압박 통한 것”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홍콩恒生중국기업지수(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선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H지수 ELS 자율배상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의 자율배상 ‘압박’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450여명을 차례로 접촉해 내용을 안내하고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개별적인 조정비율



시중은행이 H지수 ELS 손실관련 자율배상에 나선다. 서울시내 시중은행 ATM기의 모습. /뉴시스

협약과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자별 고려 요소가 다르고, 개별협약이 필수적인 만큼 배상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H지수 ELS 평균 배상 비율은 40% 수준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H지수 ELS 판매 규모는 주요 은행 중 가장 적은 415억원이고, 다음달 첫 만기 도래분 43억원의 손실률은 45% 안팎으로 예상된다. 예상 손실액에 평균 배상 비율을 단순

적용하면 총 배상 규모는 약 100억원으로 보인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도 배상안 결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에, 신한은행

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관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콩 ELS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로, 홍콩 H지수가 급격히 하락하며 상반기에만 손실 규모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ELS의 총 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원으로, 국민은행이 8조 197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은행(2조 3701억원), 농협은행(2조 1310억원), 하나은행(2조 1183억원), SC제일은행(1조 2427억원), 우리은행(413억원) 순이다.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H지수 ELS 물량을 기준으로 은행별 예상 손실 배상액(투자자 손실률 50%, 평균 손실 배상비율 40% 가정)을 산정해 보면, KB국민은행이 948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2666억원), NH농협은행(1476억원), 하나은행(1466억원), SC제일은행(1237억원), 우

리은행(73억원) 순이다.

이처럼 은행권이 자율배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압박’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은행연합회 이사회 후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와 다음 주 각 은행의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걸쳐 각사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그 과정에서 당국과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과 동시에 이달 내로 입장을 정리하라는 은행권을 향한 압박으로 해석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실시한다고 하니 다른 은행들도 따라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마지노선을 제시하면서 기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속도 ‘한양·삼부’ 등 신고가 행진

‘분담금 0원’ 등 건설사 적극 참여
한양아파트 35평형, 22.8억 거래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간만에 재건축 수주전이 펼쳐졌던 서울 여의도 일대의 집값이 들쭉이고 있다.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는 한양아파트는 거래가 됐다하면 신고가를 기록했고, 호가가 뛰었다.

다만 아파트별로 다소 온도차는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만큼 수익성이 좋아도 실거주가 힘들다고 평가되는 경우 가격을 내려도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전용 109.42㎡(12층)는 22억8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작년 5월 19억1000만원(8층)에 거래되던 것이 6월 19억9000만원, 11월 22억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들의 호가는 23억원을 웃돈다.

한양은 ‘여의도 1호 재건축’으로 불릴만큼 속도는 일단 빠른 편이다. 지난 23일에는 현대건설로 시공사 선정도 마무리했다. 여의도 재건축을 선점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최근 공사비 급증에도 700만원대 공사비가 제시되는가 하면 동일 평형 입주 시 ‘분담금 0원’ 조건도 나왔다. 1975년 준공된 한양은 기존 8개 동 588가구 규모에서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92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여의도의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한양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평형(35평)의 대지 지분은 약 13평으로 여의도 다른 아파트와 비교하면 적은 편이지만 재건축의 특

성상 추진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최근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여의도 아파트 지구는 1971년~1978년에 지어진 16개 단지로 모두 재건축 연한을 한참 넘겼다. 노후화에 부진했던 집값이 들쭉이기 시작한 것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다.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서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졌다.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사업진행이 빠른 곳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삼부아파트 전용 77.69㎡(12층)는 이달 7일 23억원에 거래돼 전 최고가 20억 2500만원에서 큰 폭으로 올랐고, 광장 3~11동 전용 116.53㎡(9층) 역시 24억 9000만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사실상 없다보니 거래가격에 대해 평가하기는 힘들다. 옛 문화방송(MBC) 터에 ‘브라이트 여의도’가 여의도 자이 이후 18년 만에 신규 공급됐지만 분양가 상한제 등을 이유로 민간임대 후 분양으로 선회했다. 올해 2분기부터 조기에 분양 전환이 가능해 전환가격은 평당 9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향후 시장 분위기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는 지난 2021년 4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됐고, 다음달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여의도의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아파트를 매수하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며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도 소형평형 등 가족단위로 거주하기 힘든 매물은 가격이 오히려 내렸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자세히 알아보기

여성 건강에 진심이기에 한화손해보험이 차병원과 함께합니다

한화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무배당)

여성의 건강을 제대로 알아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여성 생애 주기에 맞춰
세심하게 보장합니다
(특약 가입 시)



배타적 사용권 획득 (3개월, 24년 01월 23일부터 적용)
유방암(수용체타입) 진단비(특약) | 출산장려 가입력 보존 서비스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한도, 면책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계약 합계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http://www.hwgeneralins.com>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14903호(2024.01.29)

쉽고 편하게 바로 상담받기 1833-7667



김경진 “새 시대 열겠다” vs 장경태 “무능한尹정권, 심판”

〈與〉

〈野〉

22대 총선 격전지

서울 동대문을

뉴타운 보수화 등에 與野 박빙 여론조사서 장 45%, 김 40% 기록 김경진, 지역발전 이뤄낼 것 강조 장경태, 동부간선 지하화 등 공약

서울 동대문구 전농1·2동, 장안1·2동, 답십리1·2동으로 구성된 서울 동대문구는 전국에서 가장 면적(6.01㎢)이 좁은 선거구로 알려져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9번의 총선에서 민주당계열 정당 후보가 이긴 것은 세 번 뿐이었다. 민주화 이전에도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등 보수계열 정당에서 의석을 가져가는 곳이기도 했다. 특히 흥준표 현 대구시장은 서울 동대문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다.

다만 19대 총선부터는 민주당계열 정당 후보들이 연속 3번 승리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점하면서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던 동대문구는 국민의힘에게는 ‘헛지’가 됐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장경태 당시 민주당 후보와 이해훈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맞붙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나선 장 후보가 3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후보 SNS 갈무리

선의 이 후보를 10.73%포인트 차로 넉넉히 따돌렸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지역이 민주당에게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다. 뉴타운의 보수화 등으로 인해 2022년 대선 당시엔 일부 지역에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했고, 같은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등 21대 총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22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알려지지



장경태 민주당 의원. /후보 SNS 갈무리

않은 ‘격전지’에 속한다. 24일 현재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는 현역의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이 장 의원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장 의원은 45%, 김 전 의원은 40%를 기록했다. 양자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4.4%포인트) 내다. 다만 여야는 해당 지역을 박빙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리서치엔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6일 조사한 것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무선 자동 응답전화조사(ARS) 50%·무선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 50%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인물론’ 김경진, 野 12년 비판하며 “새 시대 열겠다” 강조

서울 동대문구에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이는 김경진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의로 활약을 펼쳤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보특별단장을 지낸 바 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구 당협위원장에 내정됐고, 지난해에는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지난달 무난하게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경진 전 의원은 ‘정권심판론’에 맞서기 위해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 전 의원의 홍보물을 확인해보면 “지난 12년 만족하셨습니까. 제가 동대문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갔던 12년

을 비판하며, 본인이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장경태, 4년간 의정활동 강조하며 ‘정권심판’ 내세워

서울 동대문구의 ‘디펜딩 챔피언’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립대학교를 다니며 동대문구와 인연을 맺었으며, 평당원으로 시작해 15년의 시간 동안 정당 내에서 꾸준히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난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장 의원은 “국민과 함께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면서 ‘정권심판론’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과 875원’ 발언을 비판하고,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급거 귀국을 두고 “정작 호주에서 할 일이 없었나 보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면목선 사업’ 진행,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일부 착공 등의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그는 ‘더 빠르고 안전한 동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완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조기개통 ▲신규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답십리 문화거리 사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尹, 공식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중단’

야권 “총선 겨냥한 관권 선거” 반발 물가안정 등 정부핵심 정책 홍보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 해결을 역점에 두고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현안을 챙기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오는 28일 시작되는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잠시 중단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연초에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해결한다는 자세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해왔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총 스물한 차례(한 차례 불참)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회를 비롯해 강원(2회)·인천·부산·대구·울산·경남 창원·대전·충남 서산·전남 무안 등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야권은 민생토론회를 ‘총선을 겨냥한 관권 선거’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해 법적 대응까지 나선 상황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련 금지)를 위반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계획된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성 정책실장은 “구체적인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잠시 중단되는 것”이라며 “총선 이후 재개하고 연중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에 민생토론회의 일시 중단은 4·10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8일을 시작으로 정부가 나서서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 이후 재개될 민생토론회는 그동안 주요 공약 사항의 점검과 민생 현안을 청취한 만큼 정책 이행 속도 등을 점검하는 ‘관리형 민생토론회’로 진행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생토론회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의 홍보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들은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의료 개혁을 비롯해 늘봄학교, 물가 안정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성 정책실장은 24일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에 “가급적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행정적인 처분이나 사법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지만, 현재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불거진 물가 문제와 관련 전제적인 물가는 안정된 상태나 특정 품목의 수급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조금 높았던 부분이 사실”이라며 “대표적인 게 농산물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채소, 과일류가 될 거 같다. 따라서 최근에 급증했던 신선식품과 관련된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 지적에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한 채 정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성 실장은 “공시가격만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데를 어렵게나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공시가격에 연계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복지 혜택들이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美 Fed “지속적인 인하 가능성은 불확실”

» 1면 ‘스위스 금리 인하’서 계속

ECB “지표에 따라 대응할 것”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연 3.50%로 4차례 동결한 상태다. 유로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2.8%를 시작으로 2% 후반대에 머물러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지표에 따라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첫 금리인하 이후에도 금리와 관련된 특정 경로를 미리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습을 강화하고, 최악의 경우 핵 미사일 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상태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임금 및 기업 이익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리인하 시작이 연속적인 인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도 물가상승률의 변동성이 커 금리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6월 9.1%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올해 1~2월 3%대를 유지하며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 6일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발표한 점도표(Dot plot)를 보면 올해 적정 기준금리 수준은 4.5~4.75%를 유지했지만 2025년은 3.75~4.00%로 기존(3.25~3.50%)보다 높아졌다. 6월 금리인하는 가능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인하 가능성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의 토마스 조던 총재가 2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금리인하를 발표하면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는 22일부터 0.25%포인트가 인하된 1.5%의 금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우리나라도 현재 물가상승률이 2월 기준 3%대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물가안정기조의 전환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초 인플레이션 발생 이후 발생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3.2년 걸린다고 했다. 물가안정기를 감안하더라도 이전수준의 금리까지 돌아가는데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통화위원회(2월 22일 통화정책방향)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다수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리스크가 남아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국제유가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에 영향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6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민생 강조하는 한동훈 “금투세 폐지, 힘 실어주길 바라”

한, 전의교협 만나 현안 논의 나서 강대강 대치에 여론 악화 차단 취지
총선서 금투세폐지 발목잡는 野 심판 민생특위 구성해 민생경제 대안 제시

국민의힘이 24일 4·10 총선을 17일 앞두고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걸었다. 이는 용산발(發) 악재를 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해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의 대중원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약을 언급하는 등 전면에 나섰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오늘 오후 전의교협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0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방침에 오는 25일 시작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의교협 역시 의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출근길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시

증원 취소소송과 집단 사직 등을 예고한 바 있어, 협상의 여지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한 위원장과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의 만남에 대해 “그쪽(전의교협)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며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나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틀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에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한 위원장은 이날 총선 공약인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그는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1400만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발목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고물가로 인해 혐악해진 민심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의 악재를 넘어 집권여당의 면모를 선거판에서 돋보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전날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꾸러졌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정치 선동으로 민생을 도외시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함께 잘사는 동료시민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민생은 여당, 정쟁은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릴 묘책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묘책은 없다.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계속 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책은 ‘난장판을 치자’, ‘깡판 치자’ 이런 류”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그래서 안된다. 혼란이 있어서는 나라가 전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저런 식의 극단적인 대결만을 이야기 하는 세력이고, 공공연하게 탄핵을 이야기한다. 과거 탄핵 이야기 할 때 역풍을 우려해서 꺼내지 않는 게 정치의 섭리였는데, 공공연히 당대표부터 다 하고 있다”며 “그런 세력을 상대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민생과 경제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있어서는 나라가 전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저런 식의 극단적인 대결만을 이야기 하는 세력이고, 공공연하게 탄핵을 이야기한다. 과거 탄핵 이야기 할 때 역풍을 우려해서 꺼내지 않는 게 정치의 섭리였는데, 공공연히 당대표부터 다 하고 있다”며 “그런 세력을 상대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민생과 경제라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서재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국민 모두에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재명, 서울 송파·강남·서초 찾아 “가계 소득 지원 통해 소비 늘려야” 지역화폐로 지급… 예산 13兆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에서 당의 힘지로 꼽히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을 찾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치솟은 서민 물가에 정부가 고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화폐 지급 공약을 내걸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강하던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다시 살아난다”며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조재희(송파갑)·송기호(송파을)·남인순(송파병) 후보와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시

만드는 민생 경제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 유행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

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펼친 바 있는 이 대표는 “우리는 지난 코로나(유행)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

며 “오히려 전보다 매출이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약 13조원으로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의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면서 “그보다 적은 약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처방을 했다. 우리만 하나는 거심 아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IMF(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

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면서 “정치인들의 삶보다 국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련 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끝드 타이밍을 지금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공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1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언급하면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확실하게 벌을 줘야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잘했다면 현상대로 유지 하라고 표를 주고, 만약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 무능했다. 국민을 무시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확실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태홍 기자 pth7285@

전상범 “GTX-C, 수유역 연장”… 전문가 “노선 취지와 달라”

(서울 강북갑 與 후보)

GTX, 서울 집중현상 완화 위한 것 비용도 정부 아닌 지자체가 부담해야

서울 강북갑 전상범 국민의힘 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의 수유역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해당 공약은 서울 집중 완화와 수도권 전역 30분 출퇴근 실현이라는 GTX-C 노선의 취지와 맞지 않아 ‘총선용 공약(空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상범 후보는 지난 21일 제22대 총

선 강북구갑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지역 주민에게 보낸 문자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GTX-C 노선의 정착역인 광운대역에서 지선을 뽑아 수유역까지 연결 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광운대역과 수유역의 직선거리는 약 4.5km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연결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GTX-C 노선이 연결되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약의 효과에 대해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GTX-C 노선을 수유역에 연장함으로써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에 강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수유역 역세권을 종합개발해 강북구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구체적으로 GTX-C

노선은 서울 도봉구의 창동역에서 서울 노원구의 광운대역을 지나 서울 성동구의 왕십리역으로 뻗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승인된 GTX-C 노선의 실시계획에는 수유역 연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 국토교통부 출신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GTX 정착역을 신설하려는 지자체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 외에 신설역을 추가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안 부담 원칙으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유역이 속해 있는 강북구청도 GTX-C 유치보다 ‘신강북선’ 유치를 목표로

이미 지난해부터 ‘신강북선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한 수도권의 1~3기 신도시를 위해 GTX를 건설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에 갑자기 서울 내부에서 GTX의 지선을 뽑는다는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것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상범 캠프 관계자는 “출퇴근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천·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 광역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GTX-C 노선에 이미 반영돼있는 상록수역을 언급했다.

/백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올고 웃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함선경 매니저

정혜리 대표

이호찬 팀장

세종시 조치원을 '리리' 팀

소상공인분들께 간판, 실내 보수 지원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하러 가기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사업명 :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 4월 5일(금)

신청방법 : 하나 파워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anapoweron.com>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연장선 개통땐 삼성역까지 30분대... 두달새 집값 1억 쯤

GTX 노선 따라가보니

검단신도시

3개 정거장, 내년 상반기 개통
초역세권 등 미래 호재 기대감
준공 끝낸 상가 공실없이 운영
우미린더시그니처 6.8억 거래

“인천 검단신도시는 GTX-D 호재와 별개로 집값을 상승시킬 여건이 많다.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이 들어오면 불편했던 교통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찾아간 인천 서구 원당동 ‘우미린더시그니처’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검단신도시 정중앙에 위치한 단지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우미린더시그니처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3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26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 2022년 1월 입주를 시작했다. 공항철도와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는 계양



인천 서구 원당동 '우미린더시그니처'.

역 1번 출구에서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 걸렸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연결하는 6.825km, 3개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노선이다. 지난 2020년 10월 착공해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8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 전 구간 지하터널이 하나로 연결돼 사통팔달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검단 연장선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의 신규 교통수요

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공항철도와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도심지역은 물론 송도국제도시 등과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돼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단지 주변에 준공한 상가는 대부분 주인을 찾아 공실 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GTX-D 노선 이외에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감찰청 북부지청 신설 등 미래 호재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인천 서구 원당동 '호반써밋1차'.

/김대환 기자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GTX 전체 노선을 포함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GTX-D·E·F 신규 노선도 신설해 이른바 ‘2기 GTX 시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D·E·F 신규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를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GTX-D 노선은 부천 대장을 분기점

로 김포 장기와 인천공항으로 갈라지는 노선과 삼성을 분기점으로 교산과 원주로 갈라지는 노선이 이어진 ‘더블 Y자’ 형태다. D 노선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에서 삼성역까지는 약 3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둘째 주(11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했다. 낙폭이 전주(-0.03%)보다 축소됐지만 1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구(0.04%→-0.02%)는 청라·가정동 등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발생하며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부터 내림세가 이어진 서구의 매매가격은 1월 마지막 주(0.02%) 상승 전환한 후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우미린더시그니처’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5억8000만원) 대비 1억원 올랐다.

우미린더시그니처와 함께 검단신도시 일대 집값을 견인하는 ‘호반써밋1차’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72㎡가 6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1개월 만에 3000만원 상승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청약홈 개편 끝... 내달까지 3만가구 푼다

서울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등
수도권 1.3만가구 등 일반분양

청약홈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봄철 성수기 아파트 분양시장이 열린다.

24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말~4월까지 분양을 계획 중인 곳은 총 30곳, 2만9519가구(약 3만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분을 제외한 2만2492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총 21곳, 1만4765가구(일반 1만1396가구) 대비 약 2배 가량 많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3곳, 1만2798가구(일반 1만4267가구) ▲지방광역시 11곳, 1만932가구(6506가구) ▲지방도시 7곳, 5789가구(일반 5560가구) 등이다.

봄 분양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분양을 늦게 받을 수록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인

식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73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마련 수요자의 공포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란 점이다.

이외에도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부부중복청약, 장기가입자 우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신생아 가정 우선 배정 등 완화된 청약제도 또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에서 분양소식이 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는 ㈜디에이치프러티원(시행)과 DL이앤씨(시

공)가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 407가구 중 36~180㎡ P, 32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금강주택은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84㎡, 730가구를 선보인다.

우미건설은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에 재개발하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59~84㎡, 1200가구 중 8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권이다. DL건설은 대전 중구 문화2구역에 재개발 해 짓는 ‘e편한세상 서대전역 센트로’ 39~84㎡, 749가구 중 49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롯데건설은 부산진구 가야동에 짓는 ‘가야역 롯데캐슬 스키아일랜드’ 59~84㎡, 725가구를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 역세권이다. 롯데건설은 또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84㎡, 714가구를 선보인다. /이규성 기자 peace@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분양

대우건설, 6개동 630세대 일반분양
남향 위주 판상형·혼합형 구조 설계
여유로운 동간 거리에 숲세권 위치

대우건설이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28층, 6개동, 총 630세대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118세대 ▲84㎡B 87세대 ▲84㎡C 268세대 ▲84㎡D 26세대 ▲110㎡ 131세대로 구성된다.

단지는 신명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한다. 분성중, 분성고, 구산고 등 초중고를 아우르는 학군을 갖췄다. 인근에 장신대역 학원과 화정글샘도서관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도 들어서 있다. 분성산, 경운산에 둘러싸인 숲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해변권을 따라 마련된 산책로와 김해 시민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대우건설은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설계와 커뮤니티 등 차별화된 단지를 선보인다. 남향 위주에 판상형 구조(84A·84B·110)와 혼합형 구조(84D), 2면 개방형 설계(84C)를 적용해 채광성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조감도.

/대우건설

과 일조권,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세대당 1.36대 이상의 주차공간 설계로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택배 차량도 진입 가능한 100%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과 보행동선을 분리한 안전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다. 넓은 중앙광장을 배치해 여유로운 동간거리를 확보하고 지상에 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했다.

대우건설 분양관계자는 “김해 삼계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숲세권과 삼계 중심상권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단지”라면서 “경전철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삼계역 간이승강장까지 신설되고 나면 최적의 주거입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하나금융, 명동서 ‘줍깅’ 등 봉사활동 실시

하나금융그룹이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그룹 임직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행복상자 전달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 ‘줍깅’으로 진행됐다.

먼저 임직원들은 그룹 명동사옥 대강당에서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행복상자를 만들고 명동 인근의 소상공인 사업장 100곳에 직접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

다. 또한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에게 노후 간판교체와 매장 인테리어 등 실내 개보수를 지원하고, 메뉴개발 및 마케팅 등 1대1 상담과 토론회를 제공 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소상공인 지원사업 ‘하나 파워온 스토어’ 홍보를 진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후 임직원들은 일상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운동 ‘줍깅’을 통해 명동 인근 지역의 환경정비를 시



강태은 명동상인협의회회장(왼쪽부터)과 지역 소상공인,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행하며 이날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BNK금융

주당 510원 배당

BNK금융지주는 지난 22일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2023년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현금배당을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BNK금융그룹은 지난해 부실 위험에 대비한 대손충당금의 선제적 적립과 상생금융 지원의 일회성 비용 증가로 당기순이익(지배지분기준)이 6398억으로 전년 대비 1452억원 감소했다. 이번 주주 배당금은 주당 510원(중간배당 100원 포함)으로 결정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국제 구리가격 급등... 전선업계, 수익성 개선 빨라진다

구리가격 t당 9000달러 육박
평가 조정 가능... 수익증대 기대
신공장 건립 등 사업 다각화 박차

전선업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구리가격이 급등해서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산업 등 전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수요 확대가 업계의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국제 구리 가격은 톤당 8873.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거래일보다 83.5달러 오른 수치다. 구리 가격은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장중 톤당 9000달러 선을 돌파하며 지난 202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가 커져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전력 공급망 구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 시장 확대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따른다. 이외에도 세계 주요 구리 광산이 잇따라 폐쇄하는 등 공급 부족 현상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리는 케이블 원재료비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구리 가격의 상승은 전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공급계약을 할 때 원재료 가격에 맞춰서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넣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 덕에 전선업체들은 구리 가격이 오를수록 판가를 조정해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오히려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셈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운 다른 제조업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국내 양대 전선 기업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대형 해외 수주가 잇따라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LS전선은 지난 6월 덴마크 기업 CIP와 대만 평미아오 해상풍력사업의 해저케이블 우선협상대상자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타이중 항구 근해에 500MW(메가와트) 규모로 지어진다.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급 규모는 약 1300억원이다.

대한전선은 글로벌 인프라 그룹인 발포어 비티에 3800만달러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영국 북부에 132kV(킬로볼트)급 신규 초고압 전력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가공선을 지중선으로 변경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송전 용량 확대를 노린다.

실적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LS전선은 지난 2022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6조6214억원, 219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 4조5743억원, 영업이익 1631억원을 기록한 만큼 무난히 매출 6조원, 영업이익 2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전선도 지난해 15년 만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2조8456억원, 영업이익 784억원, 순이익 670억원으로 순이익 기준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전선업계는 사업 다각화로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된다. LS전선은 국내 해상풍력 사업 수주에 이어 대만, 베트남 등 글로벌 해저케이블 급성장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용 부품 사업도 공급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 중이다. 대한전선 또한 해저케이블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기 위해 신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수익성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부산시 금곡동에 설치된 현대차 초고속 충전 시스템 E-pit.

현대차그룹 “2025년 ‘E-pit’ 500대 구축” (초고속 충전 서비스)

국내 충전 생태계 발전 주도 방침

현대자동차그룹이 초고속 충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기차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2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초고속 충전 서비스 E-pit(이피트)를 2025년까지 500대를 구축해 전기차 충전 편의성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가장 최근 문을 연 부산 금곡동 이피트를 포함해 2024년 3월 현재 총 54개소 286기로 확대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286기를 포함해 2021년 대비 약 600% 증가한 총 500기의 이피트 충전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피트는 최대출력 350kW 사양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 400V/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춘 아이오닉 5를 배터리 충전량 10%부터 80%까지 약 18분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은 400/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와 최대출력 350kW의 자체 충전 서비스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 6를 비롯해 기아 EV6-EV9, 제네시스 GV60,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G V70 전동화 모델 등이 멀티 급속 시스템을 탑재했다.

외부 환경과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약 18분이면 아이오닉5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이피트 평균 충전 시간은 18.5분”이라며 “빠르고 편리한 충전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피트 외에도 2025년까지 계열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를 통한 국내 초고속 충전기 3000기와 현대엔지니어링을 통한 완속 충전기 2만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고객의 충전 접근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충전 생태계의 ‘차충비(충전기당 전기차 수)’를 계산하면 세계 최고 수준인 약 1.85대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국 충전기 30만5307기를 2030년까지 120만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모두 확대해 국내 충전 생태계 발전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국내 충전 사업자와의 제휴로 이피트 패스 생태계를 지속 확장해 차세대 전기차의 우수한 상품성에 걸맞은 빠르고 여유로운 충전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의 충전 사용 편의성을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친환경·정숙성 더해 고급화... 패밀리카 재탄생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실내공간 발군... 장거리 여행 최적
'정체구간 특화제어' 등 편의성 향상

학원용, 작업용, 특수용 차량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스타리아가 패밀리 차량으로 진화했다.

현대차 미니밴 스타리아의 고급 모델인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는 이 같은 이미지를 완벽하게 탈피하고 친환경과 정숙성을 더한 다목적차량(MPV)으로 탈바꿈했다. 넓은 실내 공간과 개방감을 갖춰 2열에 앉은 탑승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특히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가정에는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일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7인승 모델을 시승을 통해 느꼈던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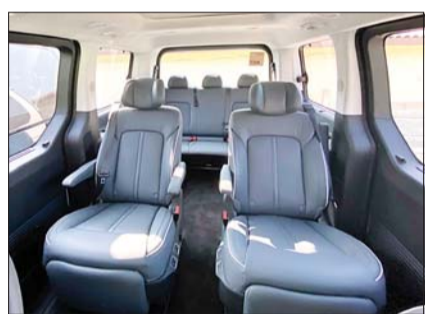
이날 시승은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을 출발해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나인블록 프로방스점을 경유해 돌아오는 약 6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우선 기차지인 나인블록 프로방스점까지는 '쇼퍼 드라이브(기사가 운전하는 차)'로 이동했으며 복귀는 '오너 드라이브(직접 운전하는 차)' 방식으로 진행했다.

쇼퍼 드라이브를 위해 2열에 탑승했다. 차고가 낮았고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면 전동 사이드스텝이 튀어나와 아이어나이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이 승하차하는데 부담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발을 높이 들지 않고도



현대차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주행 모습.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 2.3열 모습 /양성운 기자

편안하게 차량에 탑승할 수 있었다.

2열 독립 전동시트는 공간이 넓고 안락했다. 키 177cm 성인 남성이 탑승해 발을 뻗어도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스타리아 라운지 하이브리드의 전폭은 1995mm, 전고 1990mm, 전장 5255mm, 휠베이스 3275mm로 경쟁 차종인 카니발(전폭 1995mm, 전고 1775mm, 전장 5155mm, 휠베이스 3090mm)보다 길고 높은 공간을 제공한다.

시트는 릴랙스 모드를 활성화해 45도로 눕히자 머리부터 다리까지 완벽하게 체중을 분산시켜 무중력 상태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제공했다. 독립시

트에 적용된 팔걸이와 넓은 공간에 노면 소음도 크지 않아 마치 항공기 비즈니스 좌석에 탑승한듯한 느낌을 줬다. 다만 2열과 3열을 완전히 평평하게 접을 수 없어 차박을 즐기기에 다소 부담스러웠다.

주행 편의성도 대폭 향상됐다. 내비게이션 도로 정보를 활용한 '정체구간 특화제어' 기능은 저속 정체 구간에서 가감속 반복 시 불필요한 엔진 시동을 최소화해 준다. 또 하이브리드 모델인 만큼 실시간 연비·에너지 흐름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연비는 만족스러웠다. 이날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을 끝내고 확인한 연비는 12.6km/L로 공인 연비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카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3인승 모던 3433만원 ▲5인승 모던 3513만원, 투어러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9인승 모던 3653만원 ▲11인승 모던 3653만원, 라운지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7인승 인스퍼레이션 4614만원 ▲9인승 프레스티지 4110만원 ▲9인승 인스퍼레이션 4497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T, 전환 지원금 상향... 최대 32만원

폴드4 구입시 지원금 최대 100만원

SK텔레콤이 프리미엄, 실속 단말에 대한 공시 지원금, 전환 지원금 상향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지난 23일부터 삼성 갤럭시 폴드4, 폴드5, S23, Wide6, 애플 아이폰 14 등 10개 단말을 전환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며 총 16개 단말에 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12만원 수준이었던 지원금도 최대 32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전환 지원금 상향으로 이용자들은 출고가 159만8천원의 삼성 갤럭시 폴드4 일반 모델 구입 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의 5GX 플래티넘 요금제를 가입할 때 공시 지원금 72만원, 전환

지원금 28만원이 지원된다.

SK텔레콤은 공시 지원금과 전환 지원금으로 고가 휴대폰에 대한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중저가 휴대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16일 갤럭시 A24, 18일 A15에 대한 전환지원금 적용으로 이용자들에게 해당 기종을 '공짜폰'으로 제공한 데 이어, 23일부터 갤럭시 Wide6 모델도 추가해 적용 모델을 3종으로 늘렸다. 'T는 전환지원금뿐 아니라 공시 지원금도 확대하고 있다. SKT는 지난 15일 공시지원금 수준을 삼성 갤럭시 S24 모델은 48만원으로 기존 대비 11만원 상향하고 Z플립5 모델은 58만원으로 기존 대비 10만원 상향했다.

다만 이번에 인기 기종인 갤럭시 S24, 아이폰15 시리즈에 대한 전환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美·中 갈등에 발목 잡힌 ‘틱톡’ “국가안보 등 데이터 안전문제”

13일 하원서 틱톡금지법안 통과
개인정보 수집·중 공안 전송 혐의
조지아대학 보고서 “정황 없어”
구글·애플 등 EU서 벌금 철회

SNS 틱톡(TikTok) 퇴출을 위한 미국 정부의 공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원의 ‘틱톡금지법’이 가결된 데 이어 상원에서는 연일 관계자를 불러 틱톡의 문제성을 살피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안보 갈등이 틱톡을 통해 표출된다는 설명부터 자국 기업 보호, 중국발 앱에 대한 근본적 문제까지 다양한 비판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악스오스를 비롯해 미국 내 외신은 미국 국가안보 관계자들이 전날 미국 연방 상원에서 틱톡이 사용자 감시와 거짓 정보 선전,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알렸다.

브리핑 내용 중에는 틱톡이 이용자의 휴대폰 마이크를 통한 음성 정보 수집 및 전송, 자판 사용 및 앱 이용 정보 추적 등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 하지 않을 시,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며 이루어졌다.

이번 틱톡금지법 가결에서 문제시된 것은 틱톡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과 중국 공안당국 내 정보 전달 혐의다. 국가안보와도 관계있는 데이터 안전 문제인 만큼 좌시할 수 없다는 게 하원의 입장이다.

그동안 틱톡을 대표로 하는 본디(bndee) 등 중국 앱들은 모두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중국 당국이 중국 내 앱의 과도한 개인 데이터 수집을 금지하는 법안인 데이터보안법(DSL)과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통과시킨 것은 2021년 5월이다. 이



EU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서비스 중인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 공정거래 위반을 포함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수조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PEXEL

전까지는 앱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생체정보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최초의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이기도 하다.

실제 틱톡금지법안이 가결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틱톡의 퇴출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도 이루어질 만큼 지대한 국가적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가에 대해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상원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의 제한 등을 문제로 들어 금지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이 감지된다. 상원 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 등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랜드폴 상원의원도 신속처리 절차에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내며 가결 여부는 더욱 오리무중이다.

여기에 더해 틱톡의 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연구소마다 다른 결과를 내면서 실제 입증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2022년 7월 호주 인터넷 2.0(Internet 2.0) 연구소에서 낸 사이버 보안 보고서는 틱톡의 소스코드 분석 결과 과도한 수준의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밀튼 L. 필러 교수 등이 펴낸 조지아 테크 보

고서는 “틱톡은 현재 대부분 SNS 앱을 포함한 모바일 앱과 같은 수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틱톡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국가간 문제로 본다.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요소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환으로 해석하거나 미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한 자가당착으로 해석한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하는 DSA 패키지가 시행 되기 전인 지난해 5월 메타는 EU로부터 페이스북이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미국에 지속 전송했다며 12억 유로(약 1조 711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의 여러 플랫폼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거대 SNS 기업은 플랫폼 간 아이디 통합 및 기기를 이용한 방문/구매 기록, 위치 및 음성정보를 수집 후 이를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으로 포장했다. 유독 틱톡에 관해 미국 정부가 예민 반응을 보이며 매각을 유도하는 데에는 현재 바이트댄스가 메타 등 미국 내 주류 플랫폼 기업 대다수와 달리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중기부, 온라인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진출 참여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 참여기업을 4월 8일까지 모집한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해외향 자체 쇼핑몰 구축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할인 ▲물류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

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사업은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직접 입점판매 또는 전문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기업의 판매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접판매 지원업체를 기존 400개사에서 9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디어콘텐츠마케팅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쇼핑몰 내 라이브커머스 및 기획전 개최 등을 지원한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향 자사몰 구축, 리뉴얼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동물류 지원사업에서는 물류비 할인 및 풀필먼트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은 약 7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활로가 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고비즈코리아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실시간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각종 온라인수출 사업 및 행사정보 등을 받아볼 수도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청호나이스, 美서 에스프레카페 등 호평

‘2024 시카고 가정용품 박람회’

청호나이스가 지난 17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의 소비재 전문 박람회인 ‘2024 시카고 가정용품 박람회’에서 뛰어난 기술력이 담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선보이며 현지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섰다.

24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서 커피머신과 얼음정수기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프리미엄 올인원 제품인 ‘에스프레카페’와 초소형 슬림 사이즈 역삼투압 정수기 ‘TIDY’ 그리고 향균 공기청정기 ‘A600’ 라인업 등을

소개하며 현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에스프레카페’는 에스프레소, 룽고, 아메리카노, 소프트아메리카노 중 나만의 스타일 선택이 가능하며, 최적의 원두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신모듈을 적용해 이상적인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내장된 카본블록의 경우 NSF/ANSI 미국 인증 규격에 따라 WQA(국제수질협회)로부터 미세플라스틱 99% 제거 인증을 받았다.

청호나이스 향균 공기청정기 ‘A600’은 총 4단계 공기청정 기능과 산화아연 소재 향균 집진필터로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기업 신입채용, 학벌보다 직무능력 우선

서류·필기보다 면접 중심 압도적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출신 학교 등 스펙보다는 직무관련 일경험을 더 비중있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방식은 서류·필기보다 면접 중심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작년 11월 20일~12월 22일 중 실시했으며, 315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의 직무중심 채용 경향이 뚜렷했다. 우선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는 직무경험·경력 등 직무능력(96.2%)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채용전형 중 서류·필기보다는 면접 중심(92.1%)으로 채용한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기업들은 신규채용 결정요소를 묻는 질문에 ‘직무관련 일경험(35.6%)’, ‘일반직무역량(27.3%)을 1,

2번째로 많이 꼽았다.

응답기업 중 79%는 작년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채를 병행했는데, 기업들은 향후 채용방식에 대해 수시채(81.6%), 경력직 채용(70.8%)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지원’(76.2%)을 꼽았고, 취업에 필요한 일경험 방식으로 ‘장기(3~6개월) 인턴십’(74.0%),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성과 제출’(34.6%) 등을 선택했다.

기업과 청년 모두 미래의 채용에서 가장 큰 변화에 대해 ‘AI 활용 증가’(기업 29.5%, 청년 52.4%)로 예상했다. 다만, 청년들은 기업보다 AI 활용 채용, 비대면 면접 도입 등에 대한 체감도가 높았고, 기업들은 이보다는 ‘4차산업 혁명 분야 채용 증가’(24.8%)의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대학·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업해 청년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장인화 “초일류 기업, 현장에 해법 있다”

(포스코그룹 회장)

100일간의 현장경영 스타트
첫 행보로 포항 열연공장 방문
직원들과 구내식당서 소통이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100일간의 현장경영을 시작했다. 취임과 함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최정우 전 회장과 달리 장인화 회장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22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포항 냉철 방전 당시 피해가 컸던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100일 동안 포항, 광양, 송도 등 그룹의 주요 사업 현장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장인화 회장이 포항 4고로 개수 현장에서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포스코그룹

만들겠다고 밝힌 장 회장의 첫 현장 행보다. 이번 현장 소통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에서 설비와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들과 소규모로 만나 자

유롭게 소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장 회장은 “초유의 사태를 맞아 녹록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노력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정상화를 이뤄낸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혹독한 시련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꾼 여러분의 노고에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수해 복구 당시 현장을 지킨 포항제철소 직원들과 구내식당에서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갔다. 장 회장은 “수해 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열정과 단결되는 마음이 바로 포스코의 저력”이라며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법은 현장과 직원들에게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주최:**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 **후원:** 충청북도
- **등록:** 운영사무국 M&C기획 02-721-9818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포럼에 참가한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M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이특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교수 "Organoids for Post-Radiotherapy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the RESTART study" 강연2: Ryuichi Okamoto 교수 "Clinical application of patient-derived organoids"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인간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정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임승원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바이오벤처기업의 IPO 전략"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스팩, 피합병기업 따라 상장폐지까지... 단기투자 열풍 '주의'

하나스팩32호, 2389 대 1 경쟁률 스팩주, 상장 첫날 최소 2배 ↑ 공식 급등에도 증가 댄 최초 공모가 수준 2000원대 매수, 장기·분산투자 저수익이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

기업공개(IPO) 시장을 향한 소액투자자들의 단기투자 열풍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시장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하지만 스팩주들은 상장 첫날만 '반짝 으뜸세'를 보이며 대개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단기적인 스팩주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상장하는 하나스팩32호(하나32호기업인수목적)는 일반 공모 청약에서 238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 총액은 60억원(300만주)에 공모가는 2000원이었다. 45억원은 기관투자자에게, 15억원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됐다.

이러한 '흥행성공'은 스팩주의 상장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스팩32호(하나32호기업인수목적)는 일반 공모 청약에서 238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ChatGPT의 DALL·E 기능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첫날 공모가가 '적어도 2배 이상 오른다'라는 공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자 기조 아래 하나스팩32호는 무려 일반투자자의 자금 3조5847억원이 증거금으로 몰렸다. 이는 한국에 스팩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최고 경쟁률로, 2022년 미래에셋비전스팩1호가 기록한 1414 대 1 경쟁률보다 약 1.7배가량 높은 수치다. 하나32호스팩 경쟁률이 이례적으로 높아

진 이유는 '스팩 시장 과열'과 더불어 하나32호스팩의 공모일이 IPO기업 공모 청약과 다른 스팩 공모일과 겹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하나32호스팩의 '시장 가치'를 높게 평가해 공모에 뛰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스팩은 일종의 '폐이퍼컴퍼니'다. 어느 회사를 인수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들어가기에 기업 IPO처럼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상장 첫날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한 스팩들도 그날 종가는 최초 공모가인 2000원 언저리에 머물렀다. 또한 스팩은 역설적으로 가격이 높으면 비상장기업주의 지분이 낮아져 합병 성공 가능성도 떨어진다.

실제로 이달 5일 상장한 하나31호스팩은 최고가 4830원이었지만 같은 날 종가는 202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거래대금도 상장 첫날에는 2581억원인 반면, 6일에는 27억원, 7일에는 12억원, 8일에는 3억60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가장 최근인 22일의 종가는 2070원, 거래량은 9545만원이다.

스팩은 피합병기업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저가 추가매수를 감행하거나, 가격 상승세에 따라 스팩을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추종매매하게 되면 해당 스팩의 상장 폐지 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스팩은 3년 안에 피합병 기업을 찾지 못할 시 상장폐지 수순으

로 들어간다.

다만 단기투자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면 스팩은 충분히 원금 손실 없이 안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2000원 이하의 스팩을 매수해서 기업 합병을 기다리는 것이 저수익이지만 가장 안전한 투자방법으로 꼽힌다. 합병 대상 기업을 찾지 못하고 스팩이 청산돼도 공모주 투자자들은 공모가 기준(2000원)으로 투자원금과 3% 내외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혹, 공모가보다 높은 스팩 주가가 양질의 합병 대상 기업을 찾게 되면 스팩 주주들은 유리한 비율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어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2000원대 스팩 위주로 분산투자를 하면 큰 손실은 막을 수 있고, 분산투자한 스팩 중 합병 소식이 들리는 종목에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스팩의 합병 성공률은 63.9%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코스피, 2800선까지 가나?... '추가 상승' 전망 엇갈려

외사·기관 유입, 반도체주 주도 상승 국내기업에 긍정적 신호... 기대 ↑ 추세반전까진 한계... 불확실성 존재

2년여 만에 275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측과 이미 상승 호재가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불확실하다는 측으로 갈리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보다 3.06% 오른 2748.56으로 거래를 마치며 주간 기준 한 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 지수도 2.67% 상승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비둘기파' 적인 시장 해석에다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깜짝 실적 발표로 외국인 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도체주



코스피가 전 거래일(2754.86)보다 6.30포인트(0.23%) 하락한 2748.56에 장을 마친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904.29)보다 0.31포인트(0.03%) 내린 903.98에 거래를 종료,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22.4원)보다 16.0원 뚫 1338.4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주도의 상승장이 나온 걸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과 기관은 각각 3조706억원, 9984억 원어치를 대량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21일 하루에만 1조8783억원을 순매수해 역대

순매수액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주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미국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소멸한 데다 인공지능(AI) 성장 기

대감, 국내 1분기 어닝시즌 기대 등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과 증시 상승세가 추가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측이 맞서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다음 관심은 이달 미국 고용과 1분기 기업실적 내용이다"며 "최근 수출, 마이크로 실적 등 국내기업 실적에 측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충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FOMC가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올해 금리인하 스탠스도 유지되면서 외국인 이 한국 주식을 다시 사들일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대형주, 경기민감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국인 순매수세가 물리고 있는 대형

반도체주에 여전히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향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증시 상승세가 추가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상승세가 미국 증시의 레벨업, 코스피의 추세반전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했던 긴장감이 완화되는 국면이지만, 여전히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간의 시소게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800선 돌파를 위해선 채권금리 레벨다운으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 레벨업이 가능하거나 강한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수 상승 동력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관희 기자 wkh@

금감원 "상장사, 공시의무 위반사례 적발... 지분공시 유의"

자본시장 투명성·기업가치 제고 나서

#. A씨는 지난해 2월 3일 발행 주식 등 총수의 10% 상당의 상장법인 B상장사의 전환사채(CB·발행주식 총수의 10% 상당)를 신규 취득하고도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같은 해 6월 1일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전환권 행사일이 아닌 전환사채 취득일에 보고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A씨의 사례를 '보고의무 위반'으로 지적했다.

최근 상장사 지분보유 현황에 대한 공시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분공시 정기심사시 착오나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시의무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24일 금감원은 자본시장 투명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 임원 등에게 주식,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

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별관계자 주식 신규 취득과 관련한 전망 때도 사례도 존재한다. 한 상장사의 경우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 B씨와 친족,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에 있는 C씨가 이 회사 주식을 0.6%를 취득했는데도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지 않다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이 0.9% 증가하는 시점에 합산해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족이나 공동보유자 같은 '쌍방 특별관계자'의 추가나 제외는 '1% 이내 변동'하더라도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고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나 계열회사의 임원 같은 일방 '특별관계자'의 추가·제외는 합산 보유지분

율이 직전보고 대비 '1% 이상 변동'하면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발생한다.

상장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대량·소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다. 한 상장사의 주요주주인 D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3%를 장내매도해 소유상황(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량보유(변동)보고만 하고 소유상황(변동)은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주요주주, 임원 등은 보유·소유 주식 등 변동시 대량보유 보고와 소유 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량·소유 보고 의무 발생 여부와 보고 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대량보유 보고를 이행했다더라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동시에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대량·소유 각각 보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아이엠비디엑스

최종 공모가 '1만3000원' 2171개社 수요예측 참여

NGS 기반 액체생검 플랫폼 전문기업 아이엠비디엑스가 최종 공모가를 1만3000원으로 확정했다.

24일 아이엠비디엑스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참여한 기관 100%(가격 미제시 포함)가 공모가 밴드 상단인 9900원 이상을 제시했다. 2010년 이후 코스닥 신규상장 기준 역대 최대 수요예측 참여건수인 2171건으로 최종 경쟁률 865.73:1을 기록했다.

이어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은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상장 예정일은 4월 3일이다. /원관희 기자

수출 중소기업 시장·품목 다변화 등 글로벌화 총력 지원체계 부족 중기부, 부처 내 전담조직 필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 수출확대 모색

외교관 출신이론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을 맡고 있는 오영주 장관이 '수출국(局)'도 없는 부처에서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돌파구를 어떻게 모색해 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초 중기부 장관으로 부임하기 직전까지 주 베트남 대사, 외교부 차관 등 외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오 장관의 경력과 취임 후 발언, 행보를 보더라도 글로벌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동시에 이를 큰 소임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장관이 이끌고 있는 중기부 조직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기부는 출범 당시 중소기업 해외 수출·진출을 총괄하는 국장급 조직이자 컨트롤타워인 '해외시장정책관'까지 뒀었지만 2년여 만에 해체된 후 수출과 관련해 지금까지 수동적인 정책만 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9만4635개 사로 10만개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7.7% 수준이다. 중소기업 숫자는 전체 기업수의 99%에 달한다.

24일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외교부 장관이 중소기업계와 수출 현안 등을 놓고 공식적으로 간담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자리는 오 장관이 지난 1월24일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아이디어로 제안해 성사됐다. 오 장관(22회)이 위외고시 기준으로 자신보다 9기수 높은 조 장관(13회)에게 부탁, 든든한 지원군으로 등판하면서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마련"을, 조 장관은 "중소기업 영업사원이 돼 현장 지원 강화"를 각각 강조하며 부처 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해 수출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전 세계 167곳에 있는 재외공관을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오 장관은 이에 앞서선 '중기부 현장소통포럼'도 발족했다.

포럼 위원으로 위촉한 16명 중에는 수출 확대를 포석에 두고 선임한 인물도 다수 포함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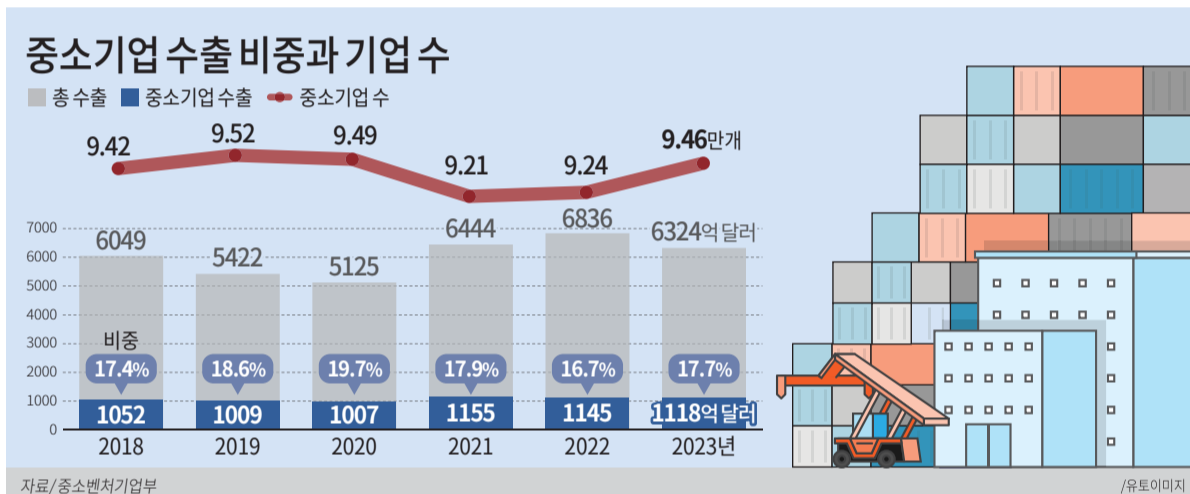
국립외교원에서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글로벌통상 전문가인 대구대 김양희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상하 국제거시팀장, 국제무역 등을 전공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민호 산업·시장 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상식 동향분석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위원 위촉에는 오 장관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오 장관은 취임 후 지난 1월 중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글로벌 신시장 확대'를 화두로 제시한 바 있다. ▲수출바우처 예산 확대 ▲수출국 다변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확충 ▲재외공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왼쪽부터)오영주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 장관, 부임 직전까지 외교분야서 활약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 해체 후 수동적 수출 중소기업, 지난해 기준 9만 4635개 그쳐

중기중앙회-외교부와 3자 업무협약 체결 부처 간 업무 칸막이 해소 등 수출확대 협업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현장지원 강화 약속

공공기관, 대기업, 경제단체 등으로 꾸린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장관의 '의지'와 중기부 '현실' 간 괴리는 적지 않다.

부처 격상 후 차관 직속으로 2년 넘게 존재하며 'K-중소기업' 수출을 총괄했던 중기부내 해외시장정책관은 이후 중소기업정책실 소속의 '글로벌성장정책관'으로 이름과 임무가 바뀌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출 관련 임무가 축소됐음은 물론이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현재 글로벌성장정책과, 기업금융과, 국제통상과, 판로정책과를 관장하고 있다.

마지막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특임교수는 "대기업 중심 경제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옮기는데 핵심은 바로 '글로벌'이다. 저성장시대에 내수는 한계가 분명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으로 나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 중기부를 만들 때 모든 정책 수단을 수출에 두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목표였다. 그런 차원에서 수출을 총괄하던 국장급 조직이 없어진 것은 참 애석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중 핵심은 바로 '글로벌'이어야 한다. 부처내에 글로벌 수출·진출

에 부합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중기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이 해외에 나가 수출을 지원하는 상무관 파견도 전무한 상태다.

산업부 상무관은 현재 30여 개국에 걸쳐 약 50명이 나가 있는 상태다. 중기부 전신인 중기청이 한때 산업부 외청이었던 시절을 감안하면 산업부가 독식하고 있는 상무관 자리를 중기부가 하나라도 꺾자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실리콘밸리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처음으로 과장급 2명을 협력관으로 파견한 바 있다. 이에 앞서선 베트남 호치민에 과장급 주재관 1명을 내보내기도 했다. 다만 주재관과 달리 협력관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아울러 중소기업 해외 수출·진출을 돕는 공공기관 중 코트라(KOTRA)는 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기부 산하로 양분돼 있다.

이런 가운데 4월 중엔 오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그리고 중기중앙회 3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2018년 9만4162개에서 9만5229(2019년)→9만4900(2020년)→9만2114(2021년)→9만2448(2022년)→9만4635(2023년) 등으로 10만개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당시 17.4%에서 2020년 19.7%까지 늘었다 지난해엔 17.7%로 하락했다.

오 장관은 "취임 후 35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하면서 들은 목소리 중엔 내수를 넘어 해외 수출·진출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수출기업은 담보 상태에 있고, 수출 지역과 품목도 좁다.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시스템도 아직 미진하다. 여러 지원 체계를 강구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송미령 장관, 장바구니 안정 위해 한달째 현장행보

유통가 자체할인 등 적극 동참 요청

서울 아울렛 세이브존 노원점 방문 농축산물·가공식품 가격동향 점검 단가인하·할인지원 등 협조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난 2월 이후 대형마트와 유통업체, 외식업체 등을 직접 찾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현장점검을 한 달째 이어오고 있다. 이는 사과·배 등 농산물을 비롯해 설량·소금 등의 가공식품 가격까지 급등한 데 따른 행보다. 할인지원 등을 통해 물가 자극 요인을 정부가 나서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24일 서울지역의 아울렛 매장 세이브존 노원점을 방문해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할인지원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둘러봤다. 이어 현장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소형마트를 포함한 전 유통업체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납품단가인하 및 할인지원을 중소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월29일 송 장관은 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못난이 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농산물 코너를 찾아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과(비정형과) 및 소형과 할인판매 현황을 점검 한 바 있다. 현장에서 그는 “부족한 국산과일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과일을 할당관세로 도입한 만큼, 낮아진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충분한 물량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7일에는 긴급기자간담회를 열어 “참외 등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및 할인 지원을 추진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3~4월 중 204억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1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함으로써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연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10일 서울 도봉구의 농협창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자체할인 행사, 가격 인

하 노력 등 유통 및 식품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달 12일에는 서울 가락시장을 찾아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14일에도 유통·식품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에는 대구 군위군의 배 생산단지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 상황 및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달 19일에는 제분업계를 찾아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하락효과를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22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가격동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점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홍해사태에 물류비 2.5배 ↑ 무협-HMM, 해상운송 지원

중소 수출기업 물류차질 해소 위해 연말까지 2.5만TEU규모 선복 제공

홍해 사태와 파나마 운하 통항 차질 장기화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차질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2만5000TEU 규모 선복(선박 내 화물 적재 공간)이 지원된다.

한국무역협회는 HMM과 공동으로 25일부터 ‘중소기업 해상 운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해 사태와 파나마 운하 통항 장기화로 인한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차질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컨테이너선 운임지수(KCCI)에 따르면, 2월 기준 한국발 유럽 노선 해상운임은 지난해 10월 대비 250.1% 상승했고, 한국발 미국 동부 노선 해상운임은 같은 기간 156.0% 상승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희망봉 우회로 인해 유럽연합(EU)

U) 항로 운항 일수는 수에즈 운하 통과 대비 편도 12~14일 추가되고 있어, 선박 순환 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화물 선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무협과 HMM은 공동으로 유럽·미국 노선에 매주 1000TEU(1TEU는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1개) 규모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확보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무협은 HMM과 협의해 미국 서안 500TEU, 미국 동안 400TEU, 북유럽 50TEU, 지중해 50TEU 규모 선복을 확보했으며, 기업은 확보된 선복을 바탕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해 화물을 선적하게 된다.

무협은 1차 선정 대상 95개사를 대상으로 3월25일부터 연말까지 총 2만 5650TEU 규모 선복을 제공할 계획이며, 중동 사태 추이에 따라 잔여 TEU를 활용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내달 전국 축산농가 렘피스킨 백신 접종

농축산식품부, 예찰·방제 등 추진 고위험 40개 시·군 129만두 접종

정부가 전국 40개 시·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소 전염병인 렘피스킨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후 시·군 34곳에서 107건이 잇따라 발생해 소 6455두를 살처분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렘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렘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백신접종, 제도개선, 위험도에 따른 예찰·방제 등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지역과 2023년 발생지역 등 40개 시·군의 소 129만두에 대해 렘피스킨을 전파하는 침파리 등 매개곤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인 4월에 백신을 접종한다. 그 외 지역의 소 267만두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사육규모가 50두 이상인 농가는 4월 1~14일까지 2주간 자가접종한다. 50두



정부세종청사 내 농식품부 전경 /메트로

미만인 소규모 농가를 비롯해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는 공수의 등으로 구성된 접종지원반(261개반 486명)을 편성해 4월 한 달간 접종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발생 농가가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항만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이에 대비한 농가와 항만 인접 도로 등에 대한 예찰 및 방제를 집중 실시한다.

해외에서의 렘피스킨 발생 상황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발생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로 인한 병원체나 매개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항만 방제, 수입원료 운송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등 국경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공정개선에 최대 1억

안전보건공 5월24일까지 신청접수 지원업종 3대→6대 업종으로 확대 50인 넘어도 中소 해당하면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4일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를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이 기계·설비로부터의 재해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공

정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5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제조업 위험공정 개선 지원 규모를 전년 2229억원 대비 1.5배 수준인 3220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업종도 기존 고위험 3대 업종에서 6대 업종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원·하청간 상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원청에서 공정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외협력업체의 경우 최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이라면 업종에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가 50명이 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18일~3월18일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나,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하는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분야’에 대해 사외 하청에 대한 원청의 투자지원 확대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홈페이지(anto.kosha.or.kr)에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후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장항제련소 오염 피해자 진료비 지급

환경부, 군산의료원과 업무협약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충남 서천의 (구)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에 나선다. 이를 위해 피해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오는 25일 전북 군산에서 군산의료원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북 및 충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의 (구)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과 토양으로 배출됐다. 이후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됐다. 만성신장염과 골다공증,

천식 등 총 27종의 질환이 보고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영양생활수당 등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대상 주민이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기대, 반도체 실습 클린룸 장비 6종추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역량 강화 융복합장치·공기조화기 등 구축

충남 천안 소재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역량을 강화한다. 한기대는 24일 반도체 제조 공정 및 장비교육·실습 공간인 ‘클린룸(clean room)’에 6종의 장비를 추가 구축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장비는 반도체소자 제조를 위한 FAB 공정 핵심 장비인 융복합장치(PECVD/PEALD), 전기로(Furnace), 복합 스퍼터(Sputter), 노광기(AI

ignerSystem), 습식세정장비(Wet-Station), 공기조화기(AHUSystem)로 교육생들이 기존 장비와 연계해 공정 전체를 통합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클린룸이란 반도체소자나 집적회로 등 정밀 전자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제거한 청정실을 말한다. 지난 2010년 건립한 한기대 클린룸은 당시 양산용 PECVD, PVD 등 50여 종의 장비를 구축 국내 대학 중 몇 안 되는 반도체 제조 공정실습 전문시설로 주목받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데뷔 30주년 기념

나윤선 Elles 콘서트

DATE: 2024.04.17 (WED) 19:30

VENUE: 롯데콘서트홀

TICKET: LOTTE CONCERT HALL **yes24**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B석 60,000원
문의 070-8671-8103



Alive! **얼라이브! 맥스 바이탈**

나윤선 "Elles" 콘서트 관람 고객 모든 분들께
고급 액상 멀티비타민 얼라이브 맥스바이탈을 드립니다
[7개입 선물세트]



전남·경북교육청, 지역 중심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 도모

올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교육박람회 관련 사업 공유 교육 현안 상호 협력방안 모색



전남-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이 22일 히든베이호텔 여수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을 마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1일부터 22일 까지 히든베이호텔 여수에서 '2024년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자리를 갖고, 지역 중심의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는 오는 5월 여수에서 펼쳐지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사업을 공유하고, 교육 현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대중·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전남·경북 교육청 국장, 각 실·과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양 교육청 패널 토의 ▲특색 사업 발표 ▲본청 연계 부서 간 업무 협의 ▲국제

교육원·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장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두 교육청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아이들을 미래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글로벌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전남교육청은 올 새 학기부터 도내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 중인

'전남형 늘봄학교'의 운영 현황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방안 등을 발표하며, 선진적인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경북교육청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번기·어번기형, 유·초·중·고, 지역연계형 등 경북형 늘봄학교 유형을 소개하고, 유관기관·마을과 협력한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두 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면서, 지역의 인재들이 돌봄·진학·취업까지 지역에서 정주해 살아갈 수 있는 교육생태계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컬교육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두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그 성과가 향후 지속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과 협력·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전남과 경북이 돌아가며 차례로 개최하며 교육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세계 물의 날' AI 캠페인 도입

경북도가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에 생형 AI(인공지능)로 'SAVE WATER, SAVE LIFE' 캠페인 디자인을 만들고 이날부터 캠페인에 들어갔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도민들에게 물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생형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캠페인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AI와 인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물 절약을 위한 즉각적인 실천과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 경북도는 25일까지 도청 화상실 세면대에 이 이미지를 설치한다.

/경북=장영우 기자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대상지 선정

부산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를 개최해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신규 대상지 12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들락날락은 15분 생활권 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도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아트 등)와 각종 프로그램을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달 기준 47곳이 개관 완료했고, 37곳이 공사 중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창원특례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로 창원특례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2021년을 제외하고 종합평가가 시작된 이후 도내 유일 3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기관노력도 ▲제도활용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30%인 72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포항시

스마트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설치

포항시는 추위와 더위를 막아 줄 스마트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총 9개소를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스마트 미세먼지 안심승강장은 지난 2019년부터 개소당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까지 총 24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환호해맞이그린빌 아파트, 선린병원, 육거리, 유성여고 4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철강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대중교통 주요 거점 5개소를 선정해 설치 예정이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부산 기장군, KBO 야구센터 가동

국내 최고 수준 야구 인프라 통해 야구테마클러스터 조성 목표 세계·전국 유소년야구대회 등 개최



기장야구테마파크 전경. /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은 KBO 야구센터로 지정된 기장야구테마파크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업을 통해 한국야구 발전의 요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장야구테마파크는 국내 최대 야구테마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기장군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다. 일광유원지 내 정규 야구장 4면, 리틀야구장 1면, 소프트볼구장 1면이 조성돼 프로·학생·사회인 등 각종 야구 경기와 전지훈련장으로 상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수한 야구 인프라와 함께 U-18 세계청소년야구대회, U-15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등 세계 및 전국 규모의 야구대회가 개최되면서 전국 야구인들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다.

기장야구테마파크는 2022년 12월

국내 최고 수준의 야구 인프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KBO 야구센터로 공식 선정됐으며, 2023년 2월 '기장-KBO 야구센터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KBO의 공식 대회와 행사, 훈련 등을 기장군에 집중적으로 유치하게 됐다.

기장군은 나아가 기장야구테마파크를 다양한 지역 관광과 연계한 랜드마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각종 대규모 대회와 행사 유치로 선수 및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남도, 조선해양기자재 해외개척 지원

해외기업 벤더등록 지원사업 성과

경상남도가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오일메이저 등 해외기업 벤더등록 지원사업'이 벤더등록과 수주계약 등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벤더등록은 발주처인 오일메이저 등 해외기업의 거래대상 업체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급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조선해양 기자재업체의 수출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다.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등록 지원사업은 도내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를 발주처인 오일 메이저 등록 하기 위해 ▲국제 공급망 체인 구축 ▲계약서 검토 컨설팅 ▲서비스 자격취득 등을 지원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해, 최근 3년간 12억 원을 지원해 총 35개사가 벤더등록을 하고 355억 원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에는 4억 원을 지원해 10개 기업이 아랍코(사우디아라비아), PETRONAS(말레이시아) 등 해외 오일메이저 기업의 벤더등록에 성공했고, 173억 원 규모의 매출달성과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참여 실적을 확보했다.

경남도는 올해도 4억 원을 투입해 10개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내 소재지를 둔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4월 중 사업 소개와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남군, '달마고도 힐링축제' 성료

힐링 걷기축제로 마련

한반도 첫 봄의 시작, 땅끝 해남의 명품 인생길 달마고도에 봄길이 열렸다. 해남군은 지난 23일 송지면 미황사와 달마고도 일원에서 '2024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달마고도 힐링축제는 '자연 그대로의 힐링, 달마고도'를 주제로 봄의 숲길에서 봄과 여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걷기 축제로 마련됐다.

축제는 돌레길 걷기를 위한 여행객이 아침 일찍부터 몰린 가운데 축하공연을 비롯한 개막식과 함께 소원나무 심기, 숲속 버스킹 등이 걷기길 곳곳에 마련돼 전국에서 찾아온 트레킹족



달마고도 힐링축제

들을 받았다. 또한 노르딕워킹, 다도, 명상, 아로마 마사지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해남특산물 판매하는 달마장터와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으로 축제장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이철우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해달라"

(경북지사)

선발 비율, 대구·경북 각 50% 배정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22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에 따라 지역인재 전형을 80% 이상 확대하고 대구와 경북 각 50%로 배정해 달라고 대구·경북 5개의과대학(동국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에 요청했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이번 요청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60% 이상 확대할 것을 권고했으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전형은 40% 이상으로 하되, 시도 비율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역 필수요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도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경북도는 특히 경북 유일의 지역 의과대학인 동국대 WISE 캠퍼스에 ▲WISE 캠퍼스 및 경주병원에서 모든 학사과정(예과 및 본과 실습 포함) 개설·운영 ▲경주병원의 전공의 수련 과정 대폭 확대 방안 마련 등을 추가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경북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대구와 경북 동등하게 맞춰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장 건강 넘어 신체 이롭게”… hy, 프로바이오틱스 중요성 전파

‘프로바이오틱스 클래스’ 진행 “인체에 좋은 영향 주는 유산균 한국인에 맞는 제품 개발 힘쓸 것”

‘프로바이오틱스’란 무엇일까. 몸에 좋다고 알려져 꾸준히 섭취하고 있지만, 성분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에 발효유 선도기업 hy가 최근 ‘프로바이오틱스 클래스’를 열고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기능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자는 취지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꾸준히 성장세다. 실제로 2022년 시장 규모는 6조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5% 가량 성장했다. 그중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8900억원에 달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체내에서 이로운



김주연 hy 중앙연구소 신소재 개발팀 팀장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역할을 하는 균을 말한다. 위와 쓸개, 소장, 대장까지 균이 죽지 않고 도달해 증식할 수 있어야 진정한 프로바이오틱스라 할 수 있다. 유산균이 몸에 흡수된 당 성분을 이용해 유산을 생산하는 미생물이려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인체에 좋은 영향을 선사하는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품 등에서 종균을 추출 후 배양해 만들어진다. 종균은 발효특성을 가진 미생물로 된장이나 김치 등 전통 발효제품과 모유 등 다양한 곳에서 추출 가능하다. 추출한 종균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시

럽을 조합하면 액상·농후 발효유가 되는 것이다.

1969년 설립된 hy(당시 한국아쿠르트유업)는 1971년 국내 최초의 발효유 ‘아쿠르트’를 개발했다. 아쿠르트 한 병(65ml)에는 200억마리 이상의 유산균이 들어있다. 끊임없는 투자와 연구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리딩 기업으로 올라섰으며 지금도 균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제조사가 연구 과정을 거쳐 기능성, 안정성에서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은 성분을 말한다.

2021년 주력 B2B소재인 체지방 감소·피부건강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2종에 대한 미국 식품 의약국(FDA) 자체검증 그라스(GRAS)를 취득했다. 이듬해 8월에는 특허 프로바이오틱스 HY2782에 대해 인증을 마쳤다. HY2782는 hy 발효유·프로바이오틱스 모든 브랜드에 사용하는 균주다. 담즙·위액에 강하고, 장내 생존율·부착능력이 높다.

hy는 기능을 더욱 세분화하고 특화된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개발에 힘쓸 방침이다. 지난해 2월에는 마시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스트레스케어 씬’을 내놨다. 해당 제품은 멘탈 헬스케어에 주력한 제품이다. 제품에는 HY2782를 포함한 총 5종의 특허 유산균을 담았다.

이날 김주연 hy 중앙연구소 신소재 개발팀장은 “hy는 국내에서 발효유의 시초를 연 기업으로 5091종의 균주 라이브러리를 통해 한국인에게 가장 잘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발굴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 공들이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hy는 장 건강을 넘어 다양한 신체 기능별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장 건강에 주로 기능이 집중돼 있었다면, 체지방 감소와 간 건강, 피부보습, 눈 건강, 면역증강, 여성건강, 호흡기, 정신건강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해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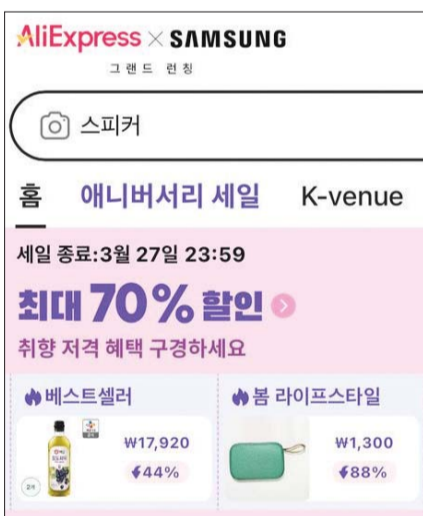
알리, 韓 고객확보에 1000억 투자·인플루언서 광고까지

‘케이베뉴’ 고객 대상 1000억 행사 소비자 반응·판매량 높은 상품 할인 MZ 세대 유명한 인플루언서 홍보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1000억원 규모의 쇼핑 보조금에 100만원 쿠폰 혜택 등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인플루언서 광고를 확대하는 등 국내 소비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유통업계는 한국에서 자리매김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8일부터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0억원 상당의 쇼핑 보조금을 지원하는 ‘1000억 페스타’ 행사를 시작했다.

1000억 페스타는 알리익스프레스 창립 기념일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다. 총 1000억원 상당의 쇼핑 보조금을 케이베뉴 상품 중 소비자 반응이 좋고 판매량



알리익스프레스가 1000억 페스타 행사를 시작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어플 캡처

이 높은 상품에 적용해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날부터 오는 27일까지 10억원 상당의 케이베뉴 전용 쿠폰을 제공하는 ‘10억 광광 프로모션’도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해당 프로모션은 화면에 나타난 불을

터치하면 무작위로 1350원, 1만원, 10만원, 30만원, 100만원 등 한국 상품에 쓸 수 있는 크레딧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ID당 1회 시도할 수 있고, 모든 참가자에게 쿠폰을 제공했다.

실제 10억 광광 프로모션은 행사 첫날에만 17만 명 이상이 몰려 조기 종료됐다.

알리 측은 “참여만 하면 쿠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참가자가 몰려준비한 쿠폰 17만7000여장이 행사 첫날인 18일 모두 동이 났다”며 “이는 국내 중소 판매자들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행사 첫날에는 계란, 바나나, 딸기, 한우 등의 신선식품이 1000원에 판매돼 10초 만에 전 상품이 완판되는 등의 뜨거운 반응을 이어갔다. 남은 기간 동안 진행되는 타임 세일에는 CJ의 알리반점 세트 및 햇반, 수세미 물티슈 등의 생필품 특별 세일을 진행한다.

지난 23일까지는 딸기, 게이밍 모니

터, 블루투스 이어폰 등이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애니버서리 세일’ 기간에 맞춰 인플루언서 광고를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MZ 세대 사이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의 실생활을 통해 알리익스프레스를 홍보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사용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며 신뢰도를 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품, 품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전미영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원은 “요즘 소비자들은 가격뿐 아니라 품질, 만족도 등 자신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소비를 지향한다”며 “알리익스프레스가 단지 저렴한 가격만을 전략으로 내세운다면 소비자들이 호기심에 한두번은 써볼 수 있겠지만, 품질이나 안정감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면 결국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푸팟퐁구리 큰사발면, 김치짜구리 큰사발면. /농심

농심 푸팟퐁구리·김치짜구리 간편조리 큰사발면 출시

농심이 용기면 신제품 ‘푸팟퐁구리 큰사발면’과 ‘김치짜구리 큰사발면’을 출시한다. ‘푸팟퐁구리’는 매운 카레에 코코넛 밀크, 계맛살 건더기를 넣어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태국 인기 요리 푸팟퐁구리 맛을 담았다. ‘김치짜구리’는 사골과 멸치 육수, 풍성한 김치 건더기를 넣어 진한 김치짜구리 맛을 살렸다. 두 제품 모두 물을 버리지 않는 전자레인지 조리 방식으로 자작하고 진한 소스 맛을 즐길 수 있다. 농심 푸팟퐁구리 큰사발면은 4월 8일, 김치짜구리 큰사발면은 15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칠성 “엘로우테일 韓 판매량 1000만병” 현대백 “네스프레소 커피 즐겨보세요”

롯데칠성음료가 공식 수입하는 호주 대표 캐주얼 와인 ‘엘로우테일’이 한국 시장 론칭 20년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병을 돌파했다.

‘엘로우테일’은 호주 전체 와인 수출량의 17%를 차지하는 호주의 대표적인 와인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아 한국 시장 론칭 후 20년 만에 누적 판매 1000만병을 돌파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엘로우테일’의 한국 시장 누적 판매 1000만병 돌파를 기념해 3월말부터 약 한달여간 ‘엘로우테

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6명에게 아이패드, 다이스 에어랩, 에어팟,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품 행사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및 와인샵 등에서 ‘엘로우테일’ 3종(까베네 소비뇽, 쉬라즈, 샤도네이)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제품 넥택의 스크래치 카드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뒤 구매 영수증 및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경품 행사에 자동 응모된다.

/신원선 기자

오는 29일까지 목동점 팝업스토어

현대백화점은 오는 29일까지 현대백화점 목동점 지하 2층 그랜드스퀘어에서 ‘네스프레소 버추오 더블 에스프레소 바’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24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네스프레소의 버추오 더블 에스프레소 돌체 커피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레시피의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또한 행사 기간 내 커피 캡슐(12슬리브)을 구매하면 특별 사은품으로 초콜릿을 한정수량 증정하고, 버추오 머신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목동점 ‘네스프레소 버추오 더블 에스프레소 바’ 팝업스토어에서 직원들이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바리스타 앞치마와 카푸치노 컵 세트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최빛나 기자

신세계백화점 봄 맞이 반려식물 전시전

신세계백화점이 봄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를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1층 신세계갤러리에서는 다음달 22일까지 우리와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반려식물을 주제로 한 ‘반려식물(伴侶植物)’ 전시가 펼쳐진다고 24일 밝혔다. 다양한 식물을 담아낸 회화 작품부터 설치미술, 조형물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의 대표 작품으로는 전태형 작가의 플랜트(Plant) 시리즈, 조은솔 작가의 텀러리, 우리는 갈라진 틈으로 쏟아져 나왔다 등이 있다. /최빛나 기자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새 국면... '키맨' 신동국 "형제 지지"

(한양정밀 회장)

신동국 회장, 지분 12.15% 대주주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핵심 인물
연금·소액주주 표심에 좌우될 것

OCI그룹과의 통합 의지를 밝힌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4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중 한 명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반대하는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을 공개 지지한다고 밝혀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과의 통합에 변수가 발생했다.

신동국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5%를 가진 개인 최대주주고 (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현재 고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사장은 모친 송영숙 회장, 여동생 임주현 사장 등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본인들을 신규 사내 이사로,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들을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주주 제안안을 낸 상태다.

주주들의 표 대결 결과에 따라 경영권이 결정될 전망이다. 표 대결은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신규 이사 5명 선임 주주 제안'과 한미사이언스 측 '신규 이사 6명 선임안'을 놓고 진행된다. 양 측 후보자 총 11명 선임안을 일괄 상정, 다득표 순으로 최대 6명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신동국 회장의 공개 지지로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보다 표 대결에서 유리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임 사장 형제 측 지분은 40.57%



한미약품그룹이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홍보하는 이미지. /한미약품그룹

이른다. 임종윤·임종훈 사장 지분에 배우자, 자녀, 디엑스앤브이엑스, 신 회장 지분을 더한 것이다.

모녀 측은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 지분에 친족, 가현문화재단, 임성기 재단 등의 지분을 포함해 35%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임종윤·임종훈 사장의 지분은 각각 9.91%, 10.56%다. 송영숙 회장의 지분은 11.66%, 임주현 사장의 지분은 10.2%다. 앞서 업계에서는 양 측의 지분 차이가 크지 않아 신 회장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거론돼 왔다.

한편 신 회장의 형제 공개 지지에 대해 모녀 측은 우선 "OCI그룹과의 통합을 결정함에 있어 대주주 중 한 분인 신 회장께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다"며 사과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한미그룹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통합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OCI그룹과의 통합은 대주주 몇 명의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상속세 재원 마련이 통합의 단초가 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약 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평택 바이오플랜트, 파트너사와 함께 글로벌 3상을 진행하던 신약개발을 국내 신약으로만 한정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 상황, 후보물질의 효능이 아닌 파트너사의 경영 조건에

의한 후보물질 반환 경험 등을 통합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업계는 이제 경영권 분쟁의 최종 항방은 7.66%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의결권 자문사 의견을 참고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경영권 분쟁에 대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한미사이언스 측 후보 6인에 대한 의결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인사 5인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국내 의결권 자문사 한국ESG 기준원은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 5명 중 4명에 대해 찬성 의견을 표하고 한미사이언스 측 6명 선임안에 불행사를 권고했다. 다만 한국ESG 기준원을 제외하나 나머지 업체는 아직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임종윤·임종훈 사장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미의 통합 계획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각되면 통합에 명분을 얻는다. 가처분 결과는 주총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라피 "자외선 차단·진정 등 한번에!"

'에이리페어 데일리 수딩 선크림'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블씨엔씨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셀라피'가 자외선 차단, 피부 장벽 강화, 진정 등을 한번에 관리하기 위한 제품을 선보인다.

셀라피는 '에이리페어 데일리 수딩 선크림'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자외선 차단막을 형성하는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다. 기존 무기자차 제품들의 단점인 뻑뻑한 발림성과 백탁 현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셀라피는 고온 입자와 셀라피 독자 배합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한다. SPF 50+와 PA++++ 자외선 차단 지수 검증도 완료했다.

무엇보다 '에이리페어 데일리 수딩 선크림'은 셀라피만의 에이리페어 더마 콤플렉스 성분을 통해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건조한 피부에 수분감을 선사한다.

셀라피에 따르면 더마코스메틱 피부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셀라피 '에이리페어 데일리 수딩 선크림'. /에이블씨엔씨.

해당 제품 사용 직후 손상된 피부 장벽 개선율은 176%, 피부 진정율은 179% 증가했다. 또 24시간 동안 피부 속 수분이 64.9% 지속됐다.

아울러 병의원 전용 브랜드인 '닥터셀라피'의 'PN 레이저 수딩 선크림'도 전국 375개 병원 및 피부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셀라피는 자외선에 더욱 취약한 피부과 시술 및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위한 저자극 해법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풀무원 뮤지엄김치관에서 김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관람객들이 김치 체험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풀무원

풀무원, 외국인들에 김장문화 알리기 앞장

'뮤지엄김치간' 外인 대상 프로그램

풀무원의 '뮤지엄김치간'이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 체험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김치 체험 프로그램을 기존 2개에서 올해 4개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뮤지엄김치간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뮤지엄김치간을 방문한 외국인 관람객 수는 1만4000여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만명 대비 약 40% 증가했다. 또, 2019년 전체 관람객의 30% 수준이던 외국인 관람객의 비중이 작년에는 45%까지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에 따라 뮤지엄김치간은 올해 외국인 대상 유료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기존 '잇츠 김치', '김치 클래스 101' 2개의 프로그램을 4개의 프로그램으로 개편했다. '잇츠 김치'는 '잇츠 김치_A', '잇츠 김치_B'로 개편했으며, '김치 클래스 101'은

'김치!_베이직', '김치!_마스터'로 세분화했다.

'잇츠 김치'는 15인 이상의 단체 외국인 관람객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유료 김치 체험 프로그램이다. '김치!_베이직'과 '김치!_마스터'는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은 4인 이상 개인 관람객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뮤지엄김치간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무료 프로그램 '외국인 김치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최소 15명 이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단체만 참여 가능하다. 외국인 김치학교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한편,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은 1986년 중구 필동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김치박물관이다. 2015년 4월 한류의 중심지인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에 '뮤지엄 김치간'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아제약

'멜라토닝크림' 광고 공개 '기미·주근깨 고민은 끝'

동아제약은 지난 2021년 멜라토닝크림을 출시한 후 거뭇거뭇한 흔적, 착색, 기미, 주근깨 등이 고민인 20~4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했다. 올해는 '색소침착 치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의약품으로서의 브랜드 입지 강화에 나선다.

동아제약은 오는 4월 1일부터 배우 박지현과 함께한 색소침착 치료제 '멜라토닝크림'의 신규 TV광고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광고에서 배우 박지현은 '색소침착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깐 멜라토닝 약으로 치료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멜라토닝크림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과다 침착된 색소를 탈색해 색소침착 치료를 돕는다. 주성분인 '히드로퀴논'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청하 기자

코스모코스, 미백기능 개발 앞장 홍삼서 찾은 비고시 원료 선배

홍삼 추출물서 '진세너지 B' 찾아
가장 우수한 멜라닌 억제 효과 보여

KT&G의 뷰티·생활건강 부문 계열사 코스모코스가 홍삼 추출물에 대한 자사 연구 성과와 전문성을 입증했다.

코스모코스는 홍삼에서 '진세너지 B'를 찾아내고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고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허가를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세너지 B'는 홍삼을 가수분해해 얻은 진세노사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미백 원료다. 코스모코스에 따르면 해당 원료를 적용한 제형으로 진행된 인체적용시험에서 피부 미백 효과가 나타났다. 육안 평가 기준 8주 후, 기기 평가 기준 4주 후 대조군 대비 피부 밝기가 증가했다.

특히 대표적인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진 나이아신아마이드, 트라넥삼산

등을 동일한 용량으로 적용해 비교한 경우에도 '진세너지 B'가 가장 우수한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를 보였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은 피부 미백 기능 개발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모코스는 향후 '진세너지 B'가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제품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코스모코스는 홍삼 추출물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지속 연구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원료 진세너지 HG ▲비고시 주름 개선 기능성 원료 진세너지 A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아울러 코스모코스는 한국 토종 민트 '배초향'에서 찾은 피부 장벽 강화 원료 퍼플 민트, '제주밭벼누룩발효물'에서 찾은 생체 유사 활성 펩타이드 아스퍼 바이오펩 IV 등 천연물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찾는 데 주력해 왔다.

/이청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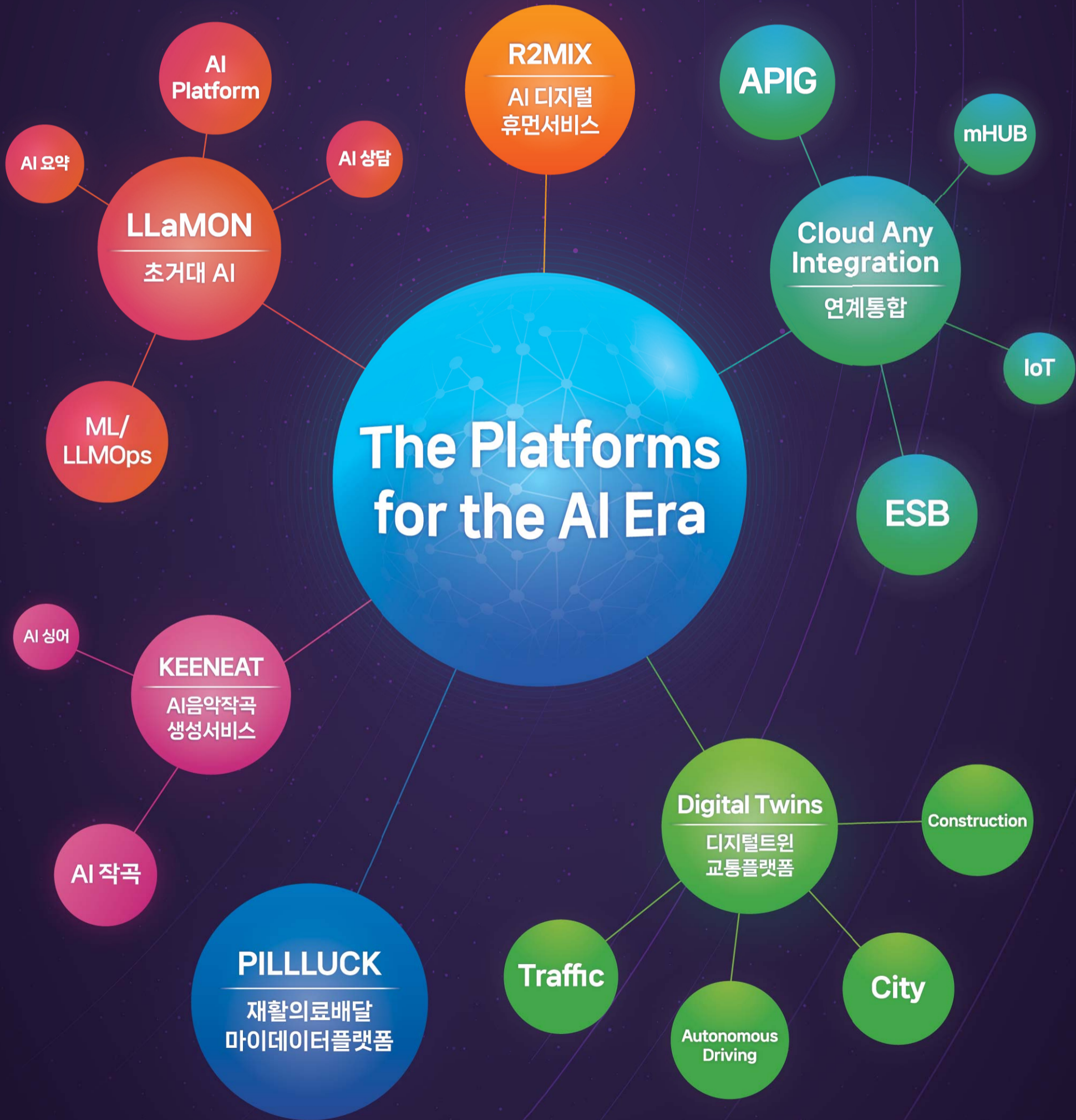


AI · 데이터 플랫폼 혁신 기업

Platforms for the AI Era

연계·통합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1등 기업에서

AI·데이터·디지털휴먼, 디지털트윈 교통·자동차·시티·건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우리는행-CJ올리브네트웍스, 전략적 업무제휴

우리는행은 지난 22일 CJ올리브네트웍스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를 허물고 미래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소비자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조병규 우리는행장(오른쪽)과 CJ올리브네트웍스 유인상 대표이사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했다. /우리는행



코스콤, 장애인 예비창업자 사업 지원

코스콤이 장애인의 IT 분야 창업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푸르메재단에 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후원금은 장애인 예비 창업자 5개팀의 사업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신경호 코스콤 경영전략본부장(왼쪽)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스콤



보험개발원, 베트남에 K-보험 인프라 구축 지원

보험개발원은 지난 21일 베트남 보험개발원(VIDI)을 방문해 베트남에 K-보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VID이 보험개발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오른쪽)이 베트남 보험개발원장(Nguyen Thai Hoa)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서울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준비 '착착'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참여를 위해 22일 용산구청, 용산철도고등학교 등과 '서울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구성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추후 교육부 공모 선정 시 해당 학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35~45억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

인사

- ◆유한양행 ◇전무△정주영(마케팅부문장) △박은희(법무실장) △김재용(기획재정부문장) ◇상무 △이학주(생산부문장) △윤동수(Hospital5 부장) △이상호(품질경영실)
- ◆KB증권 ◇신규 선임 △감사총괄(전무) 박연하
- ◆KBS아트비전 △경영이사 김중욱 △경영기획부장 이철웅 △디자인부장 김희정 △문화사업부장 김중우
- ◆OBS경인TV ◇대표이사 박성희

부음

▲이장근씨 별세, 김인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씨 부방상= 24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6일 오전 7시. 032-460-3444

KT-대동, '농업 AI' 시장 개척 나선다

양사, 농업기술 혁신 포부 로봇 시스템 개발 등 협력

KT가 미래농업 플랫폼 기업 대동과 인공지능(AI) 기반 정밀 농업 서비스 개발과 로봇 사업을 통한 농업 AI 시장 개척에 나선다.

KT는 대동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동 서울사무소 사옥에서 '농업 AI' 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T와 대동은 AI 로봇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AI 농업용 로봇 시스템 개발 ▲거대 언어모델(LLM) 기반 농업 AI 기술 혁신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 기반 스마트프밍 개발 ▲농업·비농업 분야 로봇사업 추진 ▲대동그룹 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5가지 항목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대동은 농업 기계화를 이끌어온 기업으로 최근 미래농업 기술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KT 전략·신사업부문장 신수정 부사장(오른쪽)과 ㈜대동 원유현 부회장(왼쪽)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KT

'스마트 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의 3대 신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KT는 그간 축적한 AI·빅데이터·클라우드 역량을 바탕으로 AI 기반 농업 기술 혁신을 위해 농업로봇용 AI개발, 온디바이스 AI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며, 정밀농업·농업용 AI개발·로봇 관제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으로 시장개발에 나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T는 농업 분야로 AI·로봇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대동은 애그테크(Ag-Tech) 기업으로 진화해 차세대 농기계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함께 농업 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간다는 포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상의, 中소 중처법 대응 지원... 전국순회설명회 마련

목포·부산 등 38개 지역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기업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가 손을 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부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고용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까지 안전 확보 대상으로 한다. 기업에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다.

설명회를 주최하는 대한상의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83만 개 수준"이라며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대표의 처벌이 곧 폐업으로 이어지기 쉬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한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실시 중인 안전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서현 기자 seoh@

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서비스 공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모전을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의 사회복귀지원서비스는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심리적·직업적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켜 직업 및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공단은 보다 빠른 사회복귀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다.

응모 분야는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 홍보 콘텐츠로 사회복귀지원서비스 활성화와 관련 정책 아이디어 등 총 5개 주제로 구분된다.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도 홍보 콘텐츠는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의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롯데,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 열어

파트너사 임직원 1300명 화합

롯데는 지난 22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파트너사 임직원 1300명을 초청해 '롯데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는 파트너사 임직원들과 문화공연을 통해 교감하며 더욱 화합하자는 취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를 기획했다.

콘서트 주제는 롯데그룹과 협력 파트너사의 동반성장의 의지를 담아 '더 높이, 더 멀리! 같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정했다. 음악회 진행에 앞서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과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을 비롯해 롯데 13개 계열사 대표 및 협력사 대표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



롯데는 22일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파트너사 임직원 초청 '행복나눔 동행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있다. /롯데

장을 기원하는 점등식을 통해 상생의지를 다졌다.

콘서트는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연주를 기반으로 트롯과 성악, 힙합과 K팝 발라드까지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편성과 풍성한 볼거리로 채워졌다.

/최빛나 기자 vitna@

GM '지엠이머전위크' 개최

제너럴 모터스(GM)는 쉐보레와 GMC 등의 아웃도어 액티비티 특화 차량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엠이머전위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구로구 코스트코 고척점에서 오는 25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쉐보레 타호 ▲GMC 시에라 등 총 3종이 전시된다. GM은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견적 상담과 지역 대리점 방문 시승 예약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GM은 3월 한 달간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6.5%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윤명옥 한국지엠 최고마케팅책임자 겸 커뮤니케이션총괄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봄 여행을 위한 합리적인 차량 구매 기회를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중기중앙회 'CEO 스쿨' 교육생 모집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최고경영자(CEO) 및 승계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인 '2024년 KBIZ 차세대 CEO스쿨' 교육생을 모집한다.

2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작한 'KBIZ 차세대 CEO스쿨'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할 차세대 CEO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으로 '입문과정-심화과정-성장과정' 3단계로 구성했다.

교육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교육지원실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코웨이 '소중한 물, 함께 지켜요'

코웨이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해 임직원과 함께 일상생활 속 물 환경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물의 날'은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UN)이 제정한 날로 매년 3월 22일이다.

24일 코웨이에 따르면 '블루워터 지킴이 챌린지'는 ESG 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이 실생활 속에서 물을 절약하고 수자원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코웨이는 이번 캠페인에서 ▲양치시 물컵 사용 ▲설거지 시 설거지통 활용 ▲세탁물 모아 한번에 빨래 ▲손 씻을 때 수도꼭지 잠금 채비누칠 등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활동을 독려하며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전했다.

/김승호 기자

회생개시신청과 손해배상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사가 회생개시신청을 하면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회사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도 한순간에 추락한다. 원칙적으로 주주들은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므로,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할 뿐 떨어진 주식 가치 등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물론 이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회사 임원의 배임 등이 개입되어 있다면 상법상 규정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떨어트린 임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도록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는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판단을 했음에도 회생에 이르게 된 경우를 전제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생개시신청 이후 발생한 손해를 사후적으로 회사에 추궁할 수 없다면, 투자할 당시 회사와 개별적, 사전적으로 손해배상규정을 뒤 투자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어떻게? 예를 들어, 투자자 A가 B회사에 투자하면서 '회사가 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그로 인

한 주주의 손해를 보상하고 납입한 돈 전액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아니라고 본다. "주주들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정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판결 등)라는 것.

특히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원칙적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을 무효라고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문구를 뒤 예외를 설정 해두었다는 데 있다. 이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C회사가 어려운 자금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격 역할을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관인 D에게 거액의 투자를 받아 당사자 간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C회사가 회사의 존속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려야 하는 경우 D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했다. 이후 C회사는 D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진행했고, D는 사전 동의 없이 회생절차를 개시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채

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D는 공격 지위가 인정되는 신용보증기관으로 C회사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을 투자했고,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 D에게 감시 기회를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무엇보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의 사항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니어서 다른 주주의 의견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도 아니며, 실질적으로 '약정된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이지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판결).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고 신주를 인수할 때 사전 동의를 규정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그러한 약정의 경위와 목적,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주주의 의견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해 고려한 뒤 예외적으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바른

비온 뒤 땅이 굳는다



김 정 산
(금융부)

주말에 등산을 다녀왔다. 기능성 티셔츠와 얇은 바람막이를 겹쳐서 입었다. 장갑과 목도리도 챙겼다. 막상 나가보니 바람이 제법 불었지만 완전한 봄이었다. 산에는 겨울철 떨어진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가 수북했다. 따로 챙긴 방한용품은 고사하고 입고 있던 바람막이도 벗어 가방에 넣었다. 산에서 내려오니 기침이 나왔다. 봄이 왔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한파에 몸살을 앓는 모양새다. 특히 2금융권의 취약점이 두드러진다. 카드사를 살펴보면 연체율이 9년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1년 새 0.42%포인트(p) 올라갔다.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늘어났다. 카드사들이 위험에 대비해 쌓은 충당금은 1조505억원이다. 그래도 신용카드사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순이익이 전년 대비 0.9% 줄어드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같은 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8년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를 제대로 맞았다. '직격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축은행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1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손충당금만 4조원에 육박한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특히 순이익, 연체율이 모두 악화했지만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쩌면 저축은행의 현 상황은 예고된 미래일지도 모른다. 얼마전 한 저축은행에

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동창은 부동산 호황기 PF가 돈이 되자 저축은행권이 선부르게 뛰어들어 영랑도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등산 중 덥다고 외투를 벗었다가 기침감기에 걸린 나의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때론 눈앞에 욕심을 버리더라도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예금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192.07%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두 배나 웃돈다. 이어 낮을수록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BIS비율은 1.20%p 상승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보다 단단해져야 한다. /kimsan119@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25일 (음 2월 16일) <http://www.saju4000.com>

- 37년생** 마른 눈에 물이 들어오듯이 일이 잘 해결. **49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하루가 즐겁다. **61년생** 원숭이따위의 거래는 잘 실패. **73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하늘도 높고 세상도 넓게 보인다. **85년생** 청소년의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 38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다. **50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나에게 온니 주의하라. **62년생** 삼신은 피곤하나 재물은 들어오는 날이다. **74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이니 거절 것이 없다. **86년생** 대화의 기운이 살아난다.
- 39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 **51년생** 의외의 귀인이 바로 옆에 있었다. **63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노력. **75년생** 명예는 높이지만 실속은 없는 속빈 강정. **87년생** 집안 청소로 기운전환을.
- 40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양보와 타협이다. **52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거러 돌아오니 이득이 많은 날. **64년생**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76년생** 튀는 것보다는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88년생**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주의.
- 41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53년생** 물 건너서 기본 소식이 들려온다. **65년생** 집안 제사는 함성하여 참여할 것. **7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89년생** 본격적인 부흥산 운이 온다.
- 42년생** 미워하는 마음을 접어도 운은 바뀐다. **54년생**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게을리 하지 말고 신경 쓰라. **66년생** 바람이 분다고 다 흔들리지는 않는다. **78년생** 길을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챙겨라. **90년생** 우주의 기운의 자석과도 같다.
- 43년생**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는데 힘이 든다. **55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찾아라. **6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79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라. **91년생** 오늘따라 화사한 빛이 나며 이익이 넘는다.
- 44년생** 자손의 일로 자랑할 일이 생긴다. **56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으나 손해 수도 있다. **68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마음껏 역량을 발휘. **80년생**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고 앞뒤를 살펴야 실수가 없다. **92년생** 어깨를 펴고 출근하도록.
- 45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라. **57년생** 복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된다. **69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 **81년생** 오후에 바쁜 일이 쏟아진다. **93년생**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듯이 노력이 먼저 순서.
- 46년생** 잠깐 투자했는데 결실을 얻는 운 좋은 날. **58년생** 짐차하지 말고 신용으로 행동. **70년생** 사람마다 복이 발현되는 시기가 있다. **82년생** 막말은 부메랑 같으니 말조심하자. **94년생** 사실이 있음이니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말도록.
- 47년생** 복덕이 넘치는 날. **59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 **71년생** 맛있는 장맛은 집안의 동티도 물리친다. **83년생** 농사를 지을 때 기름의 효험은 가을에 결실로 나타난다. **95년생** 수학의 수처럼 역목의 수는 과확이요 철학.

김상회의四季 행복과 행운

우리는 행복을 꿈꾼다. 행복이라 하면 복된 좋은 운수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과 기쁨이 계속되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데 행복이란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인간의 고뇌가 있다. 맛있고 귀한 산해진미도 몇 끼 이어지면 싫증 난다. 잠도 일정 시간 이상 계속 자면 머리가 아프다. 과유불급이란 말이다. 보통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재력이 좋은 부자들이 마약에 탐닉하는 이유도 가질 걸 가져보니 무미건조해지기에 더 큰 자극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질려도 좋으니 돈 한 번 맘대로 써봤으면 하는 것이니 복권 당첨이나 주식 대박 같은 한탕주의 같은 행운을 꿈꾸는데 글썽하, 이러한 일들은 횡재(橫財)에 속하는 일이라 이 역시 운수소관에 있어야 한다. 횡재의 속성이 또 다른 재앙의 원인을 함유하고 있기에 그 끝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 운으로 볼 때는 매우 조심스럽다. 행복의 기준과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어서 객관적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소욕지족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필자에게 상담을 오는 분 중 수입은 상급인데 맨날 허덕이는 사람도 있고 박봉이어도 수입의 삼분의 일 정도는 저축하는 분들도 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사주 구성에 겁재와 비견이 두드러지고 식상관이 강하면 버는 것 이상 재물이 나가고 남에게 돈을 뜯기거나 손재수를 볼 확률이 증가한다. 대운에서 겁재가 들어올 때도 그러하다. 신앙이든 신강사주든 손재를 봄으로써 건강 이상을 때우기도 한다. 따라서 겁재운이 오거나 운이 12운성중 쇠국(衰局)기운으로 흘러갈 때는 불공 기도를 통한 보시나 기부금 등을 베풀게 되면 좋지 않은 액운을 보완한다고 해석한다. 돈으로 때우는 것이 가장 낫다는 논리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와 창의력을 증가시킵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영역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8	7				2	4	
9		5		4	2			3
						5		
	7		6					9
	3		4		1		9	
6				7			3	
	4							
5			6	8		9		2
7	9				6		4	8

6	2		8	4	1	9	5	
			4		9		2	3
				2	5			
2	1						7	
5								2
	7						9	6
				7		4		
	5	2		1		4		
4	7	3	2	9			6	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9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02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수시비율 2배 이상 커질 것”

지역인재전형 1071명→2197명
80% 이상 수시 선발 전망
비수도권 내신관리 중요해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정부가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선발도 늘리기로 하면서,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수시모집 비율이 지금보다 2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이전 기준으로 2025학년도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는 1071명으로, 비수도권 의대 전체 정원의 52.9% 차지했다. 지역인재전형 1071명중 79.4%인 850명은 수시전형에서, 20.6%인 221명은 정시전형에서 선발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총 3662명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도 늘어날 것인 게 종로학원의 관측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인 경기·인천 지역 의대 전체 정원은 209명에서 570명으로, 비수도권 정원이 2023명에서 3662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늘리며 지역인재전형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총 219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은 이 중 80% 수준인 1758명가량을 수시에서 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지역인재전형 수시 규모는 예정됐던 850명보다 2배 이상 커진다. 비수도권 의대가 지역인재전형의 수시 비율을 높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수능 고득점자가 적은 비수도권에서 정시로는 미선발 가능성이 생

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과거 의대는 내신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수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정시로 이월시켰지만, 이번에 의대 모집인원이 증가하며 의대 간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비수도권은 수시에서 최대한 뽑으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완화할 가능성 높다”고 내다봤다.

임 대표는 “이럴 경우 비수도권 학생들은 학교 내신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 350명 구성

교원 지위 향상·교육활동 보호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25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원에서 350여 명의 위원과 업무담당자 연수를 진행한다. 24일 밝혔다.

각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대신해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을 심의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각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학부모, 경찰공

무원, 변호사,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급별 소위원회를 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의결을 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령의 이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시나리오 이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의 실제 등을 다룬다.

시교육청은 이번 연수와 더불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과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버스 대란’ 명동입구 정류소 밀집도 줄어

광역버스 노선 분산 등 대책 마련
퇴근시간 보행밀도 56% 감소

서울시는 지난 1월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에서 교통 혼잡 해소 대책을 추진한 결과 광역버스 운행 시간이 최대 13분 줄고, 퇴근시간대 정류소 밀집도는 50% 이상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명동 일대 혼잡도 개선을 위해 정류소 노선 분산, 퇴근시간대 모범운전자 배치, 줄서기 표지판 운영 유예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실시했다.

개선책 시행 이후인 2월 26~29일 명동 일대를 경유하는 29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오후 4~6시 차고지 출발 기준으로 전체 운행 시간이 종전 2월 19~22일보다 평균 약 5분 줄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정체 구간 초입 롯데영플라자 정류소를 시작으로 명동입구 B, 광고 등 신설 정류장으로 노선이 분산되면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류장 분산을 추진한 대

부분 노선의 평균 운행 시간이 감소했고, 성남 방향 노선은 최대 13분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명동입구 정류소 보행 밀도도 개선됐다. 퇴근 시간대 보행 밀도는 노선 분산 전 0.76인/㎡에서 대책 시행 후 0.33인/㎡로 약 56% 감소했다. 정류소 대기 인원도 35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줄었다. 운전자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수도권 승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의 전향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리스타일링·세액공제로 활기 찾는 세계도시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이탈리아, 소도시 경제 활성화
미국 포틀랜드, 세액공제 혜택

세계 주요 도시들이 소도시 리스타일링, 사업자 대상 세액 공제 혜택 확대로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라는 고질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24일 서울연구원의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작은 마을의 인구 감소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리스타일링으로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인구 축소를 사회·문화·인프라가 점차 줄고 주민 삶의 질이 위협받는 문제를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풀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젝트는 소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면서 고유문화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서울연구원은 “지역마다 고유한 전통과 라이프스타일이 명확한 이탈리아에서 소도시의 발전 여부는 국가 정책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라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통해 작은 마을들이 관광지로 자리 잡으면 대중교통, 상업 시설, 문화 서비스, 의료 시설이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소도시의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포틀랜드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들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뒤 기업들이 재택근무 확대, 고

용 축소를 통해 사무 공간을 줄이면서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급격히 감소,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자 시는 작년 9월 긴급 조례를 제정하고 세액 공제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시는 ▲2023/24 또는 2024/25 회계연도에 대상지 내 신규 임대 또는 기존 임대 기간 연장으로 4년 이상 비즈니스를 유지한 사업자 ▲대상 지역 내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4년 동안 25만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은 “세액 공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나온 경기 부양 대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원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도, 봄철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조성

181개 사업지에 녹색 생활공간 조성

경기도가 ‘생활환경순 조성 사업’ 등 15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통해 봄철 미세먼지 대응 총력에 나선다. 도는 올해 공원 및 숲 등 181개 사업지에 471억 원을 투입해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181개 사업 내용은 ▲가로숲길 25개소 ▲쌈지공원 47개소 ▲학교숲 16개소 ▲도시숲길 정비 13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6개소 등이다.

올해 도시숲 사업 중 가장 긴 구간의 가로숲길이 조성될 지역은 연천역로 구간이다.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일대에 약 5km 구간에 가로숲길이 조성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등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지역이 대상지로 결정되어 도시숲 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쌈지공원은 올해 47개소가 조성된다.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하는 학교 숲은 파주시 적암초등학교, 여주시 흥천중학교, 김포시 양곡고등학교 등 16개소에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8 | 해짐 / 18:49

3월 25일(월)
음력 : 2월 16일

수도권 날씨
10 ~ 13°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러, 테러 하루만에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 /사진 뉴스스
▲美, 씩다벨은 껌에서 채취한 DNA로 44년전 장기미제 살인사건 해결

▲체감온도 62도 치솟았던 브라질, 폭우·홍수로 최소 11명 사망
▲구테흐스, 가자구호품 봉쇄 비난…네 타냐후 “유엔이 반유대주의 선동”



▲튀니지, 유럽행 불법이민 1178명 구조…밀항 28건 단속 /사진 뉴스스
▲블링컨 “모스크바 테러공격 극악무도한 범죄”



hy
프로바이오틱스
중요성 전파
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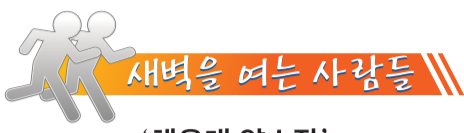


Life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새 국면
L2



“부동산 피해 막으려다 SNS 유명인사 ‘양소장’ 됐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해운대 양소장’
양 맹 속 공인중개사

“최근 전세사기 급증으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안타까워요. 중개사는 큰 자산인 주택을 거래하는 직업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일 관련 전문지식을 쌓는 것이 필수입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 일대의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해운대 양소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양맹속 공인중개사가 연일 거론된다. 양맹속 공인중개사는 20년 넘게 부산 해운대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최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배테랑 공인중개사다. 그가 이름을 알리게 된 이유는 일찍감치 SNS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 브랜딩을 해왔으며 부동산 관련 법률지식 또한 해박해서다.

◆“중개사, 관련 법률 지식 습득 등 전문성 강화 필수”

양 중개사의 하루는 아침 6시부터 시작한다. 매일 아침 경제뉴스와 관련 법률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네이버 지식 IN’ 상담은 물론 같은 동종업계인 중개인들에게도 상담을 해준다. 다양한 커뮤니티를 살피며 상담을 자처하게 된 이유는 최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부족이 연일 거론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중개사는 “딸 아이와 같은 또래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거론되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이로 인해 중개사들의 전문성도 지적되면서 무분별한 직거래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중개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법률 및 규제 사항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거래인들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관련 지식들을 활용해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전문 지식 습득이 아닌, 매일 급변화하는 시장경제 이슈와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개사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내집마련 긍정, 부동산 시장은 2년 지켜봐야”

양 소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내집마련은 지금 부동산가격이 거의 바닥을 쳤으므로 여유가 되면 내집마련의 기회로 삼아도 좋은 시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2년간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최근 정책금리 목표 수준을 지난해 9월부터 5회 연속 동결했고, 한은도 지난해 1월 이후 9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연



‘해운대 양소장’ 부동산 대표인 양맹속 공인중개사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



/구남영 기자



20년 가까이 해운대서 부동산 운영 전문성,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인기

부동산 피해 급증에 온라인 상담 자처 공인중개사, 책임의식·전문성 가져야

향후 2년, 부동산 매매 준비할 시기 2030세대로 확산된 매수자도 ‘주목’ 최근 급증한 무분별 직거래 조심해야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모습.

/뉴스시스

3.50%를 유지하고 있다”며 당분간은 금리 하락세로 접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보험 또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 준비 등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실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지난 달 3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두달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해 전국이 100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시장 반등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고금리 및 부동산 PF 이슈,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 등과 맞물리며 시장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지식과 브랜딩으로 유명세

양 소장은 최근 부동산 매수자의 연령대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부동산 매수자의 평균 연령은 4050세대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2030세대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들의 부모님인 베이붐 세대가 추적한 부를 대물림 받거나 가상자산 등 재테크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트렌드와 관련 “MZ세대, 2030세대가 이끌어 갈 것”이라며 “다만, 부촌은 변하지 않는다”며 “서울은 강남, 부산은 마린시티 등 이들의 부동산 가격은 급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중개사는 부동산이 크게 성장하게 된 계기로 ‘부동산 브랜딩’을 꼽았다. 그는 “처음 부동산 운영을 시작했을 때는 ‘뜨란채 부동산’으로 시작했지만, 부동산 지식을 꾸준히 쌓으면서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해운대 양소장’이라는 닉네임으로 온라인 상담을 지속해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의 수요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네이버 블로그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부동산매물 정보는 물론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고, 부동산 상호명도 ‘해운대양소장으로 변경하면서 부산 일대의 유명 공인중개사로 자리 잡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 중개는 마지막으로 중개사의 전문지식 강화와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실제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매물들이 급증하고 있다. 직거래란 급히 매매해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집을 사고파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37만 3000여 건 가운데 11% 정도가 직거래였다.

양 소장은 특히 공인중개사의 책임 의식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무분별 직거래 주의...전문성 있는 중개인 찾아야

양소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직거래에 대한 주의사항도 전했다.

그는 “향후 법적 분쟁 시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가압류와 전세권 등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향후 매물에 하자가 발생할 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만큼 꼼꼼히 확인하게 된다”며 “다만, 전문성이 강화된 중개인과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직거래의 경우 이같은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현장 답사는 필수”라며 “계약서에는 추후 하자발생시 보상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키면 좋고, 하자과 관련해서는 중개사의 대상물확인설명이 없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채광상태와 누수 등을 확인해 서류로 작성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이정후, 올해 MLB서 알아야 할 유망주 100명 중 3위 /사진 뉴스시스
▲프로야구 개막전서 피치클록 46회 위반...루테 14회 최다

▲황선홍 자리비운 U-23 축구대표팀, 사우디 꺾고 결승행
▲손흥민, 희귀병 고백...“불면증에 시달리는 일 많아”



▲OK금융그룹, 우리카드 제압...男배구 챔피언 진출 1승 남았다
▲신지애, LPGA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3R 공동 1위 /사진 뉴스시스

뉴스시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Global Top-tier를 향한 KT&G의 지속성장 Flywheel

과감한 성장투자와 기술혁신 그리고 공격적 해외 시장 확대로
해외 143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KT&G
Global Top-tier로 더 크게 도약하겠습니다

